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385호

Thursday, September 18 2025 A

## “순교자”... 찰리 커크, 전세계 새롭게 피어나다

MAGA·유럽 포퓰리즘·민족주의 연계, 범세계적 보수 결집

미국의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32)가 지난 10일 암살된 이후 유럽 전역에서 우파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극우 정당이 선거에서 약진하고 대규모 반인민 집회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커크의 죽음 이후 유럽 정치 지형에선 보수 세력의 약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과 유럽 포퓰리즘·민족주의 세력 간 시너지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커크의 죽음 이후 반인민 기류가 강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1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반인민 집회다. 토미 로빈슨이 이끈 이 집회엔 현지 경찰 추산 약 15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부는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들거나 마가 명칭이 적힌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커크를 추모하는 사진과 구호도 등장했다.

런던 화이트홀 주변에 모인 집회 참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반인민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찰리 커크의 사진을 들고 있다.

[로이테]

자들은 국기를 앞세우며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난민) 보트 중단’ ‘본국 송환’ 등 불법 이민자를 거부하는 구호가 적힌 팻말과 깃발도 들었다. 주최 측 추산 15만 명이 모인 이날 ‘왕국 통합(Unite the Kingdom)’ 집회는 “사실상 영국 현대사 최대 규모의 반인민 시위”였다고 영국 BBC방송이 전했다.

영국은 지난 7월 프랑스와 체결한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 협정에 따라 내주 첫 불법 이민자 송환을 앞둔 상황이다. 이 협정은 영국이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 불법 이민자를 프랑스로 송환하고, 같은 수의 이주민에게 영국 망명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이주민들은 이전에 불법 입국을 시도한 적이 없고 영국과 합법적인 관계, 가족 관계가 있는 난민 신청자를 뜻한다.

이날 집회에선 ‘국제 연대’가 단연 높은 길을 걸었다.

프랑스·독일·덴마크 극우 정치인들도 직접 연단에 올랐다. 프랑스 대권 후보 출신인 극우 성향의 에릭 제무르 의원은 “우리는 옛 식민지 출신들에게 식민지화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독일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페트르 뷔스트론 연방의회 의원도 “여러분의 싸

움이 곧 우리의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스페인 극우 성향의 정당 보스(Vox)가 연 전당대회에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화상 연설에 나섰다. 멜로니는 “자유의 대가를 목숨으로 치른 젊은이이자 용감한 아버지였던 커크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그의 희생은 폭력과 불관용의 편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이어 “좌파의 이념적 유럽을 확실히 종식하려면 불법 이민과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며 “국민의 자유와 유럽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언론은 커크의 죽음 이후 우파 세력이 무치는 현상에 대해 “유럽의 보수들이 커크를 순교자로 추앙하고 있다(유라티브)” “커크가 유럽 보수의 영웅으로 등극했다(르몽드)”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마가 운동과 유럽 포퓰리즘·민족주의 세력 간 시너지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지혜 기자

## ‘KT 소액결제’ 범인 잡고 보니 중국국적자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KT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 2명이 체포되고 보니 중국국적자였다.

당국에서는 이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국내외 배후 조직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8)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

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44)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2시3분쯤 인천공항에서,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이지만, 현재까진 공모 관계는 확인된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모두 합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용직 근로를 했다고 한다.

A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

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해 현재 정밀 감식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용 기자

## 기준금리 인하... 연내 두차례 추가 시사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5번 연속 동결 행진을 이어 오다가 9개월만에 내린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첫 금리 인하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올해 상반기에 경제 활동의 성장이 완화됐다”며 “고용 증가세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해, 연내 두 차례 더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종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불만지말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UNITED MORTGAGE NATION, LLC**  
NMLS #: 2425871

##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융자 회사!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서비스, 수십년의 경험

- 일반 융자
- 정부 융자
- 군인 융자
- 재융자
- 캐쉬 아웃 융자
- 최소 다운페이
- 최소 크레딧 점수
-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 Bank Statement 프로그램
- 투자자 대출 프로그램
- Direct Lender
- Competitive Rates
- Low Closing Costs
- Same Day Pre-approval
- 14 Days Closing Possible

Top 50 Mortgage Company

**Bryan Park**  
703-727-9730  
bpark@umnloan.com / NMLS # 842353

**Daniel Myungchul Kim**  
703-283-4828  
mckim@umnloan.com / NMLS # 1001517

**Joon Joshua Han**  
703-268-3954  
jhan@umnloan.com / NMLS # 1622782

**Chris Park**  
703-899-8660  
cpark@umnloan.com / NMLS # 246985

**Youngjean Lee**  
703-596-5409  
yjlee@umnloan.com / NMLS # 1698083

**Shane Lee**  
703-899-8876  
slee@umnloan.com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 “커크는 기독교 신앙의 수호자”

VA 리버티대학  
커크 추모 기도집회 개최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 찰리 커크를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 개신교단 계열의 버지니아 리버티 대학에서 대규모 기도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커크는 2018년 리버티 대학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적이 있으며, 2019년 리버티대학 제46회 졸업식에서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얻었다. 기도회에는 1천명 이상의 학생과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조나단 팔웰 이사장은 “미국은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이 세상 도처에서 암약하는 악의 무리에 맞서 찰리 커크는 매일매일 목소리를 높여 말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커크가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있는 모든 곳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청년 세대에겐 설교하며 그들을 옹호했다”고 밝혔다.

팔웰 총장은 또한 “그는 우리가 혼자



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며 미국 곳곳에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오류가 없고, 영감으로 주어졌으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왔다”고 역설했다.

터닝포인트 USA의 리버티 대학 지부의 카알라 파커는 “커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깊이 알고 있었다”면서 “그는 평범한 인간 그 이상으로, 젊은 세대가 따를 수 있는 귀한

말을 전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영감을 주는 유산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커크의 유산으로 청년 세대와 보수 기독교 운동을 위한 불꽃은 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불꽃은 더욱 타오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터닝포인트 USA는 전국 3500여개의 대학과 고교에 25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파커는 전국 3,500개 이상의 고등학교 및 대학 캠퍼스에 진출한 TPUSA의 25만 학생 회원 중 한 명이다.

김옥채 기자

# 한미 협상 팽개치고 한중 외교장관 밀착

조현 “시진핑 APEC 방한 희망”  
왕이 “명실상부한 동반자로”

17일 베이징을 방문한 조현 외교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의 참석과 한국 방문을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한국을 찾는 시 주석의 방한을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실무방문보다 높은 의전의 국빈방문으로 초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한국과 중국이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매진하는 데에 중요한 컨센서스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수교 당시 초심을 견지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호리공영의 목표를 견지하면서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왕 부장은 지난 11일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왕 부장은 “중국 매체가 큰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양국 사이에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고 소개해야 국민의 상호 인식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감정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지난 1일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제안한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에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시스템을 유지·보호하며, 국제질서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

동해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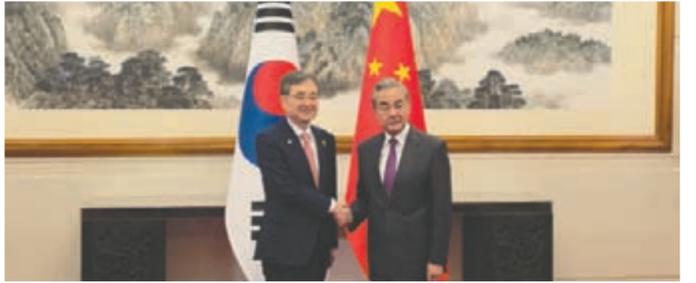
조 장관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께서 시 주석과 통화에서 앞으로 양국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국가 간에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 간에 좋은 감정을 계속 잘 만들어 한·중 관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왕 부장의 발언에 호응했다.

조 장관은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에 이어 내년 중국에서 APEC이 개최되는 것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조 장관은 특히 “시 주석이 APEC 정상회담에 오시고 한국 방문도 함께 하시길 바란다”며 APEC 참석과 한국 방문을 분리해 언급했다.

양자 회담과 만찬으로 이어진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서해 구조물도 논의됐다. 조 장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북한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해온 바 있다”며 지난 4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한 중국 측 해명을 요청할 것임을 예고했다. 조 장관은 또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16일 중국 환구시보는 사설을 실고 “APEC은 중한 양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을 심화할 넓은 무대”라며 “보호주의와 디커플링에 반대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로 공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을 기회로 삼아 APEC을 한·중 협력을 다시는 무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경진 기자



17일 베이징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조현(왼쪽) 외교장관이 왕이(오른쪽) 중국 외교부장에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한계왔다” 버지니아 소매업체 파산 신청

Banners Hallmark Shop  
전역 38개 매장 폐쇄

버지니아를 본거지로 한 배너스 홀마크 숍(Banners Hallmark Shop)의 운영자들이 16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홀마크 라이선스 매장을 운영하는 이 회사가 파산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배너스는 20개 주요 채권자에

계 총 1770만 달러의 채무를 비롯해 모회사인 LBPO 매니지먼트 LLC 또한 자산과 부채를 합쳐 1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배너스와 그 채무자 계열사는 레스틴, 페어팩스, 우드브리지 등 버지니아 전역에 3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 한인들도 즐겨 찾고 있다.

회사는 파산 신청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시장의 불확실성이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켜 조속한 해결책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가오는 홀리데이 쇼핑 시즌 동안 현금 흐름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너스는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이 접수되기 전 모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누적된 보너스는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법원 허가를 구했다.

김성환 기자

# 메트로시티은행, 추석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

10월 1일~3일 수수료 면제

한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메트로시티은행이 무료 송금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올해 추석은 10월 6일인 데, 이번 프

로모션은 한국 연휴를 앞두고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메트로시티은행 애난데일점 관계자는 16일 해당 기간 동안 개인 계좌 고객에 한해 최대 1000달러까지 수

료 없이 고국 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메트로시티은행은 버지니아에서는 애난데일과 센터빌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워싱턴 날씨 (°F)**

19일(금)	88-61	☀️	22일(월)	70-64	☁️
20일(토)	80-63	☁️	23일(화)	81-65	☁️
21일(일)	78-63	☁️	24일(수)	81-65	☁️

9월 18일(목) 82-61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b>RENT</b>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b>RENT</b>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	-----------------------------------------------------------------

**축**

**창간 24<sup>th</sup> 기념**

“축하드립니다”

항상 곁에 있는 신문, 늘 힘이 되고 있는 워싱턴 중앙일보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이 한인 동포들을 위해 힘써 주시는 언론사가 되어 주기 바랍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 **703-919-0472** | **김경아 부동산**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jennetpro4u@gmail.com

# 안나산 기도원 뉴 브릿지 진입로 준공감사예배

## 20년 숙원 사업 해결

메릴랜드 프레드릭에 위치한 안나산 기도원(원장 김영창 목사)이 새로운 다리와 진입로를 건설하고 지난 주일 오후 준공감사예배를 드렸다.

1983년 설립된 안나산 기도원은 진입로에 베넷강(Bennett Creek)이 있는데, 남북전쟁 당시 공병대가 건설한 것으로 알려진 기존 진입로 다리를 보수해 사용했지만 다리 교각이 낮아 불편이 컸다.

여름철 우기에는 수시로 내리는 폭우로 인해 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데다, 수위가 줄어도 상류에서 떠내려 온 부유물을 치워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2005년도 이사회에서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을 결의하고 2008년도에 메릴랜드 환경부(MDE)로부터 건설 승인을 받았다.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진행하지 못하다 김영창 목사가 2022년 9월 3대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재추진해 작년 8월 20일 착공하고 최근 준공하게 됐다.

한창훈 목사(워싱턴소망의교회 담임)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감사예배는 신만우 장로의 기도와 워싱턴 베다니 장로교회 중창단이 특별찬송, 김영진 목사(워싱턴 베다니 장로교회 담임)의



설교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진 목사는 성경 사55:1-13절 말씀과 '기도하는 (잔치)집으로 오는 다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도원을 찾아 집중으로 기도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깨뜨림을 통해 믿음과 기도 은혜의 체험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정길 목사(워싱턴 예수사랑교회 원로)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

다. 2부 준공 감사 및 축하의 시간에서는 김영창 목사의 사회로 장진용 장로의 경과 보고 시간이 있었다. 이어 다리가 놓여질 강변의 설계와 시공, 감리, 새로운 진입로까지 모든 공사를 감당해준 리치 드마리오씨에게 감사패와 금일봉을 전달했다.

안나산 기도원은 오는 10월5일 감사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 한인 체포·추방 급증...올해 184건 기록

## 아시아 이민자 200건 ICE, 이민 단속 강화 추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추방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추방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와 UCLA 아시아계 연구센터 등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인 이민자에 대한 체포 건수는 8월 현재까지 약 2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0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이 중 한국 국적자 체포 건수는 20여 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 회계연도 한국 국적자 관련 추방 건수는 총 184건에 달하며, 이 중 69건은 강제 추방, 13건은 자진 출국 사례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된다.

이달 초 ICE가 조지아주 서버너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에서 한국 국적자 316여 명이 대거 체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갈수록 이민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는 최근 체포 급증이 아시아계 커뮤니티 내 불안감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기간 동안 주별 체포 건수를 보면 한인들이 밀집으로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았고, 이어 뉴욕, 텍사스,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가 자리를 매겼다.

국적별로는 중국(676건), 인도(578건), 베트남(342건)과 라오스, 네팔이 전체 아시아계의 80%를 차지했다.

김성한 기자

## 한양대 메릴랜드 동문회 발족 20일 창립 기념 친목 야유회

한양대 메릴랜드 동문회(회장 유세종, 이사장 장찬규)가 이달초 정식 발족했다. 동문회는 오는 20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4시까지 팔타스코밸리 주립공원의 아발론 에어리어에서 창립 기념 친목 야유회를 갖는다.

동문회 측은 야유회 당일 바베큐 식사와 선물 증정 행사 및 장찬규 이사장의 구순 잔치도 겸한다고 전했다.

유세종 회장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동문과 가족, 유학생 누구든 환영한다"면서 "추석을 앞둔 시점에 첫 모임을 하는 만큼 동문들과 깊은 정을 쌓으며 타국살이 외로움을 덜고 학창시절 추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야유회 참가비와 동문회비는 없으며, 동문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문의: 410-925-3577, 410-746-3492, 443-226-2064  
장소: 5120 South St., Halethorpe, MD 21227  
김윤미 기자

## 부고

### 황옥성 전 메릴랜드 총한인회 초대 회장 별세

황옥성 전 메릴랜드 총한인회 초대 회장이 지난 9월 15일(월) 저녁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故) 황옥성 회장은 1935년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에 이주,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특히 메릴랜드 총한인회와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사회의 화합과 권익 신장을 위해 큰 기여

를 했다. 고별예배는 9월 17일(수) 오후 8시 30분 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에서 거행됐으며, 하관예배는 9월 18일(목) 낮 12시에 노벨 메모리얼 파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아들과 딸이 있다. >문의: 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 (310-670-1200)

## 번영으로 이끄는 실전 전략

### 함께 센터, 똑똑!

### AAPI 소규모 사업 세미나

비영리 단체 함께 센터가 다음달 2일 아메리칸 주민을 위한 스몰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추이 선임 부회장과 메릴 런치의 스티

븐 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연사로 나서 소수계를 위한 스몰비즈니스 전략 등을 한국어로 진행한다.

함께센터는 북버지니아 지역 아시아인 아메리칸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우르두어, 몽골어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16건의 응답을 받았다.

그 결과 소상공인의 37%가 자본 확

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41%가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몰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소수계의 63%가 언어적 소외 상태에 있으며, 41%는 창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는 온라인 (<https://bit.ly/4gdc10t>)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문의: 571-325-9336 윤소영, syoon@hamkaecenter.org  
장소: 8300 Greensboro Dr, Mclean VA 22102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SUNNY REALTY

- 20년 이상 경력
- 주택 매매 - 렌트 전문
- 연 80 - 100여 채 주재원 헷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축**  
**창간 24<sup>th</sup> 기념**

동포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워싱턴 중앙일보사의 창간 24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인 사회의 길잡이,  
한인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재향군인회 참여 문의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의 향군 참여를 환영합니다. (703-403-7080)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회장 김인철**

# 출근길·업소 주차장서도 불체자 체포

### ICE '피난처 도시' 단속 강화 보스턴서 '패트리엇' 작전 LA 등 타 도시로 확대 가능성

LA 경제의 젖줄로 불리던 '자바 시장'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본격화된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이 8일 LA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불심검문까지 가능하다고 판결하자 관계자들의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 다음 날인 9일 오전 11시, 자바시장의 중심가인 샌티엘리에선 적막이 가득했다. 평소라면 업체 직원들, 옷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해 찾은 소매업자들, 일반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벼야 할 거리지만 그러한 활기는 이제 온데간데없어졌다.

대형 의류 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불체자 단속 이후 자바시장은 빈사상태"라며 "고객의 발길도 끊겨 많은 소형 의류 판매 업소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의류업소들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자체가 휘청이고

있다. 이곳에서 20년째 '프렌치 비스트로'라는 카페를 운영 중인 이연희 씨는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바시장에 나오는 사람이 확연하게 줄었다"며 "자바시장 경기가 단속 이전부터 좋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더욱 심각해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자바시장 관계자들은 지난 6월 한인 운영 의류 업체인 '엠비언스(Ambiance)'를 대상으로 이민 당국의 급습 작전이 진행(현지 6월 7일자 A-1면)된 이후 ICE 요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긴장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다. 상인들에 따르면 단속 뉴스만 나오면 일하던 직원들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단체 메시지방 등에서는 ICE 요원을 구별하는 정보와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실제 샌티엘리에 몰려 있는 50여 개 업체 중 이날 문을 연 곳은 10여 곳뿐이었다. 대부분의 업체가 철문을 내리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 샌티엘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한인이 운영하는 모자 전문점 '프로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모자를 사러 온 스포츠 팬들로 바글거려야 할 때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를 비롯한 '피난처 도시들(sanctuary cities)'에서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 아파트를 습격한 ICE 요원들이 한 남성을 체포해가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LA 시청 앞에서 열린 친이민 집회 현장.

[로이터] 장에 모자를 고르고 있는 손님은 1명 뿐이었다. 애리 박 프로사이트 대표는 "단속 이전에는 하루에 방문하는 손님이 100명 이상이었다면, 지금은 5명 정도로 확 줄었다"며 "단속 공포 때문에 이 지역 길거리 유동 인구 자체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든 곳도 있다. 샌티엘리에 있는 한의원 '다니엘 클리닉'은 10년 이상 자바시장 상인들의 건강을 돌봐온 곳이다.

마이클 임 원장은 "단속이 한창이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를 비롯한 '피난처 도시들(sanctuary cities)'에서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 아파트를 습격한 ICE 요원들이 한 남성을 체포해가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LA 시청 앞에서 열린 친이민 집회 현장.

지난 6월의 경우 매출이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며 "단속 전에는 하루 평균 30명이 내원했지만, 단속 이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다니엘 클리닉 2호점을 인근에서 운영 중인 윌리엄 김 원장 역시 "불법 체류자 단속 전후로 매출이 60~70%가량 줄었다"며 "신규 손님 유입은 거의 없고 지금은 단골들 덕분에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고 털어놨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자바시장이 적막해지자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거나

잡화 등을 팔던 노점상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셔 음식 전문 푸드트럭 '홀리 그릴' 관계자는 "10년 넘게 영업을 해왔지만, 지금은 장사가 너무 안 돼 어렵다"며 "길거리가 정말 행해졌다"고 말했다.

패티스 핫도그의 캘리 로페즈는 "불법 체류자 단속 여파로 상인들이 영업을 멈추거나 직원들이 안 나오니까 장사도 당연히 안 된다"며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경준·송윤서 기자

## '신용 제로' 한인, 2000만불 스타트업 키웠다

### 11살 때 홀로 미국 온 이민자 신용 없는 설움이 사업 단초 생활비로 크레딧 쌓는 핀테크

신용점수가 없어 아파트 임대도 하지 못했던 한인 이민자가 이제는 연매출 2000만 달러 핀테크 기업 CEO로 성장해 화제다.

CNBC는 지난 15일 한국에서 홀로 이민 온 뒤 신용 사각지대를 직접 겪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토모크레딧을 세운 크리스티 김(38·사진) 대표를 집중 조명했다.

김 대표는 11세에 혼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UC버클리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11년 투자은행에 입사했지만, 신용점수가 없어 아파트 임대는 물론 자동차 할부 대출마저 거절당했다. 결국 임대인에게 직장 상사가 보증할 수 있다고 설득해 첫 집을 구했고, 신차 할부 대신 한국 가족에게 돈을 빌려 중고차를 현금으로 사야 했다. 그는 "자동차 매장은 신차 할부 판매를 놓쳤고, 나는 현금을 써야 했으며, 은행도 고객을 잃었다"고 회상했다.



이 같은 경험은 창업으로 이어졌다. 김 대표는 지난 2019년 토모크레딧을 세우고, 신용점수가 없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이민자와 청년층에게 카드를 발급해 소득·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카드 사용 기록이 없어도 월급과 생활비 지출만으로 신용 이력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토모크레딧은 빠르게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은 2000만 달러를 넘어섰고, 누적 신청 건수는 200만 건 이상에 달했다. 지금까지 유치한 투자액은 2억 달러가 넘으며,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바클레이스 액셀러레이터

뉴욕 프로그램에도 선정됐다. 최근에는 AI 기반 개인 금융 어시스턴트 개발에도 나섰다.

김 대표는 "신용점수가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제도를 몰랐던 결과일 뿐"이라며 "특히 이민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금융 생활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성 이민자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미국 금융 시스템을 질문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토모크레딧 이전에 주얼리 이커머스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핀테크 기업 크레딧세서미에서 근무했다. 지난 2018년에는 케네틱 투자 부사장으로 일하며 오아시스랩스와 블트12 같은 블록체인 기업에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고, 2020년부터는 포브스 금융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현재 토모크레딧 직원의 95%는 이민자, 고객의 90%는 유색인종, 임원진의 60%는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김 대표는 "이민자의 잠재력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며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채용해 금융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윤재 기자

## DC, 청소년 범죄자 조기석방 금지

### 연방하원, 두개 법안 통과 14세도 성인과 동일 취급

연방 하원이 16일 청소년 범죄자를 표적으로 삼은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하원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중 하나는 14세만 되어도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판사가 청소년에게 더 이상 관대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안 사전 설명에서 제임스 코머(공화, 캔터키) 하원의원은 이를 해당 구역 형법에 대한 '상식적 개혁'이라 강조하며 "워싱턴DC의 범죄에 대한 완화 정책이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표결은 31명의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240대 179의 표차로 DC형사 개혁을 통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즉시 보장하는 법안, 즉 DC CRIMES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새로운 법안은 19-24세에게 더 이상 18

세 이하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청소년 범죄자에게 의무적 최저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정책을 중단했다.

또한 워싱턴DC의회가 형량 법률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DC 법무장관에게 청소년 범죄에 대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도록 지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2023년 워싱턴DC를 공포에 떨게 하는 자동차 강탈 사건의 주범이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연령을 14세로 낮추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인 HR 5410이 225대 203의 간발의 차이로 통과됐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워싱턴DC 검찰청은 16세 청소년을 성인으로 기소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연방 상원에서는 25세 이전에 중범죄를 저지를 수감자가 조기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 폐지와 워싱턴DC 구금 감축 개정법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한 기자

**사람이 머무는 곳이 집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그 집, 제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웃음이 모이고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당신의 다음 미소가 피어날 집, 지금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주정부에서 제공하는 Invest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안 관련과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보사기 전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 한국 기업 전문 ·

**기업 컨설팅**

미국 전역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디씨 용도부터 시설 설비, 기업 컨설팅 모두 도와드립니다

---

**스포링필드 소재 23,000 SF 창고 임대** 월 임대료: \$34,500 (NNN 포함)

- 총면적: 23,000 SF
- 드라이(상온) 공간: 약 16,000 SF
- 위치: 버지니아 스포링필드, Fullerton Road

냉동 및 드라이 공간이 결합된 효율적인 창고 시설입니다. 4개의 로딩 도크를 갖추고 있어 물류 작업에 적합하며, 주요 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합니다. 월 임대료에는 NNN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 물류창고 매매**

\$3,000,000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에비뉴 인근  
14,600대/일 차량 통행, 뛰어난 가시성과 접근성!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총 건물 7,182sqft / 토지 0.33에이커, NNN투자물건 연 임대수익 약 \$180,000, 연 3% 임대료 인상 9년 이상 계약 잔여(2034년 만료) Cap rate: 6% 안정적 장기 임대수익 보장

**Chantilly 태권도/체육관 자리 렌트**

\$5,500/월

큰길에서 가까운 장소 2,680 SF

---

**이름 / 영문 이름** 송경호 (K Soung)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 부동산 컨설턴트  
**거주/활동 지역** 버지니아 주, 워싱턴 DC, 메릴랜드 메트로 지역  
**언어** 한국어, 영어  
**브로커리지** 미국 Realty One Group Capital 미전국 8위 기업  
**전문 분야** · 상업용 부동산 사무실, 리테일, 창고/공장 임대 · 매매 · 주거용 부동산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콘도 매매 · 임대 · 국제 투자자 지원 한국 기업/개인 미국 진출 부동산 컨설팅 · M&A (Wharton School) · 사업 확장 관련 부동산 자문

**상업용 부동산 경험** · 멀티 레스토랑 운영 공간 확보, 물류 유통 창고 임대 및 계약 진행  
**주거용 부동산 경험** · 구매자 · 판매자 · 투자자 대상 전략 제공  
**국제/투자 경험** · 한국 스타트업 및 IT, 바이오 기업 미국 진출 지원 · SBA, NNN, TI 등 상업용 부동산 금융 · 계약 컨설팅

**포럼/세미나 참여** · 'Innovation Highways: Strategies for Successful Korea-US Entrepreneurship' 패널  
**활동 포인트** · American Korean Business Friendship Forum (AKBFF) - 이사 · 한국 기업/개인 대상 미국 사업 확장 및 부동산 전략 자문 가능 ·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거래 경험 풍부 · 워싱턴 DC, 메트로 네트워크 활용 가능

인제, 어디서든 만만치 않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

ONE REALTY ONE 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 왕실마차·F-35에어쇼...英, 두번째 트럼프에 특급 의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1기 때인 2019년 6월 이후 두 번째 국빈방문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영국을 국빈으로 두 차례 방문한 건 트럼프가 처음이다. 영국 왕실은 전통적으로 외국 국가수반을 두 번째 임기에는 국빈 초청하지 않는다.

영국은 트럼프에 전례가 없는 초특급 의전을 준비했다. 이날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가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하자 여기(御旗·왕의 깃발)를 지키는 영국 공군 '어기 비행대(King's Colour Squadron)'가 도열했다. 영국 국방부는 찰스3세 국왕이 윈저성에서 주최하는 환영 행사와 만찬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의장대를 배치했다.

트럼프와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어 17일 오전엔 찰스 3세, 케리타 왕비, 윌리엄 왕세자, 캐서린 왕세자빈과 함께 영국 왕실 상징물로 장식된 화려한 금도금 마차 '아일랜드 국가 마차'를 타고 기병대원과 군악대 호위를 받으며 윈저성에 도착했다. 이 마차는 국왕이 의회 개원식에서 '킹스 스피치'를 위해



**트럼프, 두번째 영국 국빈 방문** 영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17일(현지시간) 영국 윈저성에서 명예 군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왕실 마차를 타고 기병대 호위를 받으며 윈저성에 행차하는 등 특급 환대를 받았다. 특히 영국이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2번째 임기에는 국빈 초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국빈 방문은 매우 이례적이다. [연합뉴스]

이동할 때 타는 마차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결혼식에도 사용됐다.

트럼프와 찰스 3세 국왕이 약속할 때는 윈저성과 런던탑에서 동시에 41발

의 예포가 발사됐다. 윈저성 환영 의식은 말 120마리와 영국 해병대·해군·육군·공군 장병 1300명이 동원됐다.

아울러 찰스 3세와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 행렬부터 의장대 사열에 이르기까지 환영식 내내 답소를 나눴다. 환영식 이후엔 윈저성 내에서 비공개 오찬도 가졌다.

이날 오후엔 사상 최초로 국빈 방문 행사에서 영국군-미국군 합동 공중분열이 열린다. 영국 국방부는 "양국이 공동으로 설계한 F-35 전투기가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전을 두고 AFP통신은 "영국 정부가 왕실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 트럼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위협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란 얘기다.

반면 런던 곳곳에선 대규모 반(反)트럼프 시위가 이어졌다. 가디언에 따르면 16일 밤 윈저성 외벽에 몇분간 트럼프를 조롱하는 사진과 영상이 재생됐다. 영상에는 트럼프가 2023년 기소됐을 당시 찍은 머그샷(수용자 기록부용 사진),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찍은 사진 등이 포함됐다.

윈저성 앞에선 수십명의 시민들이 '악랄한 파시스트', '거짓말쟁이', '차마 시러 온 독재자' 등의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트럼프의 국빈 방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강태화 기자

## 트럼프 이번엔 호주 기자와 싸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개인 재산 문제에 대해 질문한 호주 방송 기자를 질책하며 "호주에 해를 끼쳤다"고 비난했다. 그는 다음 주 호주 총리와와의 만남이 예정돼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만난 취재진 중 호주 공영 ABC 방송 기자와 개인 재산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ABC 기사는 재집권 이후 재산이 얼마나 더 불어났는지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다"며 "자녀들이 가족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내가 체결한 거래의 대부분은 그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ABC 기사는 현직 대통령이 사

적인 기업 활동에 이렇게 많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언론사 소속 기자냐고 물었다. 이어 "내 생각에는 지금 당신이 호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호주는 나와 잘 지내고 싶어 하고, 당신네 지도자가 곧 나를 만나러 올 건데 그에게 당신에 관해 이야기해야겠다. 당신은 매우 나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ABC 기사가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말한 뒤 다른 기자들을 향해 자리를 옮겼다.

호주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양국 관계는 불확실성에 시달려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호주, 영국과 체결한 안보 동맹인 오키스(AUKUS)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늘리라고 압박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다음 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15일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의 충돌에 대해 호주 정부는 ABC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예수 기자

## 유튜버들에 4년간 1천억불 지급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2021년 이후 창작자, 아티스트, 미디어 기업에 지급한 금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연례 행사 '메이드 온 유튜브(Made on YouTube)'에서 이 같은 성과를 공개하며, 창작자들을 위한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반 도구도 공개했다.

유튜브 측은 특히 TV 연결 기기에서의 시청 증가가 수익 급증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TV 화면을 통해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채널 수는 전년 대비 4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요한나 불리히 유튜브 최고제품책임자(CPO)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

브 창작자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 유튜브는 자사의 숏폼 영상 서비스 '유튜브 쇼츠'에 AI 기반 편집 기능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은 원본 영상을 자동으로 편집해 음악, 전환 효과, 내레이션 등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영상의 대사를 노래로 변환해 쇼츠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아울러 구글의 최신 AI 영상 생성기 '베오(Veo)'도 쇼츠에 통합된다. 베오 3는 일부 유튜브 영상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인성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맞춤 융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락소울)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  
미락소울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 美, 유럽 돈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첫 지원

## 제재 철회 명분 되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10억 달러(약 1조3800억원) 무기 지원을 승인하며 러시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비용을 대고, 미국이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PURL)' 방식의 첫 적용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PURL로 최대 5억달러(약 6900억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 지원 2건을 각각 승인했다고 전했다. 키이우포스트는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시스템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PURL은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합의한 프로그램으로 나토 회원국이 무기 구매 비용을 부담하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의 목록을 미국에 전달한다. 이는 미국의 복잡한 무기판매 절차를 우회하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나토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총 100억 달러(약 13조 8100억원) 규모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전 종전

에 비협조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향한 압박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며 취임 후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무기 제공도 두 차례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휴전을 거부하고, 지난달 마리아 알래스카 정상 회담 후에도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자 무기 지원으로 선화한 것이다. 나토와 유럽연합(EU)은 미국의 태도 변화에 맞춰 러시아 제재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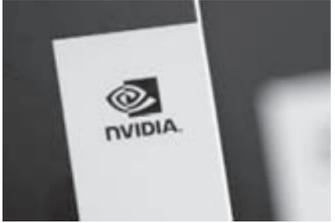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X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조치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썼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곧 암호화폐, 은행, 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19차(대리)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단계적 폐지(수입 중단) 가속화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의 압박에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맞불을 놓았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6일 군복을 입고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열린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 '자파드 2025'를 참관했다. 러시아는 약 10만명의 군인과 1만개의 무기와 장비 시스템을 동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도 러시아의 병력 동원력과 군사력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훈련의 목표는 주권과 영토를 지키고 연합국가(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어떠한 침략에서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루는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 “中 당국, 엔비디아 중국 전용 AI 칩 구매 중단 지시”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에 대해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으로 만든 최신 인공 지능(AI) 칩 구입을 금지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인 'H20' 수출을 금지했다. 이후 7월 미중 간 기술·수출 규제 관련 협상 결과 수출 재개가 허용됐으나 실제 출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엔비디아는 수출 승인의 대가로 미국 정부에 대 중국 수출 매출액의 15%를 납부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관련 규정 마련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중국 당국은 지난 달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H20 구매를 제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국영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정부 또는 국가 안

보 관련 업무에서 H20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 중국 당국이 중국 전용 저사양 칩의 구매까지 막으면서 중국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RTX 6000D보다는 AI 학습까지 가능한 고성능 칩인 H20을 선호한다. 그런데 H20은 미국 규제에 막혀 있고, 저사양 칩 RTX 6000D는 성능이 떨어져 사실상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중국의 규제까지 겹치면서 중국 기업들은 '이중 난관'에 직면했다.

한 중국 기업의 임원은 FT에 "이전에는 지정학적 상황이 나아지면 엔비디아의 공급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이제는 국내 시스템 구축에 모두가 매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 마윈, 알리바바 경영 복귀설 사내 게시판엔 'MAGA' 문구 도배

마윈(馬雲·61·사진) 알리바바 창업자가 5년 만에 복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 "2019년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섰던 마윈이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리바바 내부 게시판에는 '알리바바를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libaba Great Again)'라는 문구로 도배됐다고 한다.

지난 2020년 말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 초기부터 사실상 공개석상에 모습을 감췄던 마윈은 최근 5년 만에 항저우 알리바바 캠퍼스에 나타나 AI 전환과 JD닷컴·메이판과의 전자상거래 전쟁 등 주요 전략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대 500억 위안(약 10조 원) 규모의 보조금 투입과 AI·클라우드 인프라



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주도하며 하루 세 차례 고위 간부에게 보고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고 익명의 회사 관계자가 통신에 전했다.

통신은 "마윈의 귀환은 중국 빅테크 산업이 정부 신임을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공식 직책 복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한지혜 기자

## 中 동방항공, 상하이~아르헨 2만km 잇는 세계 최장 신규 노선 개설

중국 상하이와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에레스를 연결하는 약 2만km 규모의 세계 최장 항공 노선이 개설된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경유하는 이 노선은 비행시간이 약 25시간 소요될 전망이다.

카로 가는 최초의 항공편으로, 아르헨티나·칠레·우루과이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뉴질랜드는 노선 개통에 앞서 오클랜드를 경유하는 중국 국민에 대한 통과 비자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동방항공 측은 오클랜드에서는 잠시 착륙만 할 뿐 항공편 번호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단일 여정으로 운항되며, 상하이~오클랜드 구간에서 비교적 적은 시차를 거쳐 전체 여정에서 시간 변화 적어도 수월해진다고 강조했다.



동방항공은 이 노선이 세계 최장 노선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주 2회 왕복 서비스에 보잉 777-300ER 기종을 투입

한다고 밝혔다. 동쪽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약 29시간으로, 서쪽보다 더 오래 걸린다. 주 2회 운항으로 매년 6만

5000석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중국-아르헨티나 간 총 승객 수(5만 7800명)에 근접한다.

한편, 동방항공 왕징청(王詠晴) 사장은 지난 6월 뉴질랜드 크리스토퍼 루슨 총리와 회담에서, 2026년 이후 오클랜드 경유 아르헨티나행 노선을 확대하고 아시아 각지의 승객을 유치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번 노선은 뉴질랜드가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를 잇는 환승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실버스프링 못바위된 한미은행+mar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쉐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미은행+mar과 연방빌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마켓물가잡기프로젝트

##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SEP. 18th - SEP. 25th, 2025



### 믿을수있는 대한민국 산지직송 철원농협 오대쌀

CHEORWON ODAE RICE  
PRODUCED IN KOREA

~~\$27.99~~

4 KG

# \$17.99

현장은 수량이나 단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전예약이나 조기 품절되는 수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Stirling, VA  
36 Poplar Mill Dr., Stirling  
VA 22157

Centreville, VA  
10000 Centreville Court E.,  
Centreville, VA 22015

Charlottesville, VA  
1300 S. Mitchell St.,  
Charlottesville, VA 22901

Annandale, VA  
5200 Pitt River Rd.,  
Springfield, VA 22151

Reston, VA  
4000 Market Street Plaza,  
Reston, VA 20191

Herndon, VA  
4800 Herndon Court,  
Herndon, VA 22042

Elkett City, MD  
2001 S. Lakeside Boulevard,  
Elkett City, MD 21731

Catonsville, MD  
1000 Catonsville Mall, Inc.,  
Catonsville, MD 21032

Rockville, MD  
10000 Rockville Mall,  
Rockville, MD 20851

Beltsville, MD  
20000 Beltsville Plaza,  
Beltsville, MD 20705

Silver Spring, MD  
3000-A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10

# 이 대통령 “중앙 60년, 한국사회 나침반이자 회초리”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각계 인사 1500여 명이 중앙일보의 새 출발을 함께했다.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중앙”에서 현재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

## 60 중앙일보 창간

이재명 대통령 영상축사 “국민통합 동반자 기대”  
우원식 의장 “개헌 꼭 필요, 공론화 역할 해달라”  
홍석현 회장 “좌든 우든, 극단의 목소리 경계”

중앙일보가 새로운 60년의 문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중앙일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장과 굴곡진 역사의 현장 최일선에서 언제

나 함께해 왔다. 경제 성장의 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서,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키는 길에서, 때로는 나침반이 되고 때로는 회초리가 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중앙일보가

불편부당·정론직필 정신으로 활발한 토론과 소통의 장을 열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새로운 60년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의 공론화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축사에서 “낡은 헌법을 들고 미래로 나아가 수 없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당면한 정치·사회 갈등을 풀이기 위해 개헌은 꼭 필요하다”며 “새로운 헌법을 공론화하는 과정에 중앙일보의 역할과 기여를 기

대한다”고 말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기념사에서 “중앙일보는 편들기를 거부한다. 좌든 우든, 노(勞)든 사(使)든, 극단의 목소리를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자의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네 글자에서 중앙일보의 존재 이유를 찾아본다”고 덧붙였다. 자연 속의 물이 그러하듯, 중앙일보의 잉크가 사회 곳곳에 흘러가 모난 곳은 깎아주고, 더러운 것은 씻어주

고, 예쁜 곳은 더 빛내 주길 바란다는 의미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유윤철 경제부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각계 인사 1500명이 현장을 찾았다. **한영기 기자**

## MB “멀리서 오셨네요” 박근혜 “반갑습니다”... 12년 만에 악수

다시 만난 두 전직 대통령  
MB, 강훈식에 “수고 많이 하라”  
박 “한국인들 모두 과란만장했죠”  
행사 뒤에도 손 맞잡고 작별인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전민규 기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12년 만에 만났다. 2013년 2월 25일 박 전 대통령 취임식에 직전 대통령 자격으로 이 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처음으로 17일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에서 손을 맞잡으면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 마련된 행사장에 먼저 도착해 뒤이어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을 맞았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보자마자 성큼 다가와 “아, 오랜만이네요. 여전히 시고? 건강하시고요?”라며 손을 내밀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이 전 대

령을 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건넸다. 두 전직 대통령의 12년 만의 만남과 악수의 순간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런 뒤 “오늘(17일)

참석자 중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가장 멀리서 오셨다”고 말을 꺼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서 차를 타고 출발해 4시간 만에 행사

장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랜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뵈게 돼 반갑다”고 화답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도 활짝 웃으며 이들을 반겼다. 두 전직 대통령의 이날 만남이 주목 받은 건 단지 긴 세월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들이 한창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2000년대 후반에 보수 진영이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로 양분됐을 정도로 한국 정치사에 남을 라이벌이 었기 때문이다.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맞붙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은 보수 정당뿐 아니라 한국 정당 경선을 통틀어 가장 치열했던 혈투로 손꼽힌다. 당시 초박빙 경선의 승자는 이 전 대통령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곧바로 경선 패배를 인정하는 승복 연설을 하던 모습은 ‘아름다운 패자’의 전형으로 기억된다.

물론 이들의 경쟁이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당선 뒤인 2008년에는 한나라당 친박계 공천 배제 논란이, 2012년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반대로 친이계 공천 배제 논란이 불거지며 계파 갈등의 상징과도 같은 장면을 연거푸 연출했다. 특히 2010년 이 전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했을 때는 양측의 악감정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그래서 당시 정치권에선 “진짜 야당은 민주당이 아닌 친박계”라는 얘기가 나왔다. 각각 17·18대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정치 인생을 꽃피운 두 사람이지만 둘 다 영어의 몸이 되는 아픔을 경험하며 동병상련을 겪기도 했다. 그런 세월을 보내온 만큼 이날 행사장에서 두 사람은 지난날의 앙금을 풀어내듯 화기애애하게 덕담을 나눴다. **김나한·조수빈 기자**

맞춤 융자의 달인

#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우드브리지 싱글 Coming Soon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학군 / 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	5. 첼렌지 하이 싱글 \$1,050,000 방4, 화3.5, 4,000sqft, 차고2,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mer rd	9. 애쉬번타운 RENT \$3,300 전체마루, 2 차고, 맥, BRIAR WOODS high, 267/607
2. 사우스라이딩 타운 Coming Soon \$645,000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6. 던로링메트로알 콘도 \$460,000 방1, 화1, 1/2 층 오픈 loft, 1,835sqft, 전부 리모델링, 마루	10. 게이니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니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3. 애쉬번 타운 Coming Soon \$670,000 2012년, 방, 화3.5, 최고 학군, RT267/50/28/607, 딜러스 공항	7. 맥클린 콘도 \$40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11. 애난데일 싱글 SOLD \$699,000 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최고 로케이션, 방3, 화3, 카포치1, 새지붕, 드라이브웨이 4대, 뒷숯, 2,312sqft, 0.46acre, Sold As Is, 리모델링, 투자까지 높음, 동네시세 보다 심만불이상 싼집, 395/236/495/95/66
4. 왓슨 하이, 프로스틴미들 \$1,450,000 2025 새 싱글 방5, 화5.5, 5,000sqft, 차고2, 모던 디자인, 123/236/GMU	8. 센터빌 벙커타운 \$589,000 방3, 화2.5, 차고1, Hmart인근, 29/Braddock/28/66	12.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럭셔리 싱글 \$1,699,000 1 에이커 숲속, 6,700sqft, 방 5, 화 5.5, 3차고 • Wolf/Sub Zero 주방, 커스텀 백넨로 하드우드 바닥 •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 선릉,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아이 리저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이외 주방, 벽난로, 연못, 분수, 테크, 음향 시스템 등) 글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탭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안권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http://toptravelusa.com)

인타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 항공권**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50 유럽유심 \$50 eSIM 판매 시작

미등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AIR CHINA AIR CANADA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입니다

**동부투어**

**미동부&캐나다**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라즈버그/뉴욕  
 대형버스 확정: 9/29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5박 6일 \$1350

**뉴욕&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라이프 스페셜 특석(음선)  
 대형버스 확정: 9/29, 10/6  
 2박 3일 \$650

**뉴욕&천섬&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3박 4일 \$899

**뉴욕**  
 1박 2일 \$399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대형버스 출발 가능: 10/9(목)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당일관광 / 소수인원 출발가능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고국일주**

10박11일(제주포함) | \$2990+항공  
 8박 9일(내륙관광) | \$2490+항공

32년 전통 탑여행사가 아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고국 방문의 명가 탑여행사가 모십니다.

여행지 인천/부여/군산/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  
 하동/진주/거제/부산/울산/경주/정동진  
 강릉/속초/김포/제주

특전  
 •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 서울관광포함(경복궁, 인사동)  
 •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  
 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 최고급 호텔 숙박, 바닷가 호텔 오션뷰 확정  
 콘래드 서울/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그랜드 조선 부산,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롯데호텔 제주

**서부투어**

**미서부 일주**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54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년, 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옐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마운트 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코스타리카 연합 5박 6일 \$1300+항공

단풍특선

4차 10/14~10/24 마감임박  
 5차 10/21~10/31 마감임박  
 6차 10/28~11/07 마감임박

상기 고국여행에 일본여행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연합 투어  
 동경 3박 4일 | \$1149+항공  
 오사카 3박 4일 | \$1149+항공  
 동경&오사카 5박 6일 | \$1899+항공  
 일본크루즈 11박 12일 | \$1990(항공포함)  
 11/3~11/14  
 인사이드 \$2990+항공부터 / 오션뷰 발코니 요금문의

업그레이드! 패키지여행 최초 계약 체결  
 동대문 노보텔과 \$240 차이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롯데호텔 제주

★ 특급호텔의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호텔에 일찍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당일 단풍특선 **킹버랜드** 기차 여행

출발: 10/18(토), 30(목), 11/1(토) \$179  
 대형버스 확정: 10/22(수), 25(토), 27(월)

성곡 **노아** +아미슈마켓 당일 \$199  
 9/30, 10/16, 10/29, 11/13, 12/4

Wonderful TOUR 2025-26 Yearly Schedule

TOGETHER in KOREA 실속 패키지

내륙 6박 7일  
 한글 Tour \$1499+항공  
 영어 Tour \$1699+항공

제주도 2박 3일  
 한글 Tour \$549+항공  
 영어 Tour \$749+항공

서남권 3박 4일  
 한글 Tour \$829+항공  
 영어 Tour \$929+항공

제주+동해 6박 7일  
 한글 Tour \$1549+항공  
 영어 Tour \$1879+항공

동해안 4박 5일  
 한글 Tour \$989+항공  
 영어 Tour \$1119+항공

전국일주 9박 10일  
 한글 Tour \$2199+항공  
 영어 Tour \$2599+항공

동남아 연합 투어

방콕/파타야 3박 5일 | \$490+항공  
 하노이/하롱베이 3박 5일 | \$690+항공  
 대방 3박 5일 | \$450+항공

나트랑/달랏 3박 5일 | \$450+항공  
 대만 3박 4일 | \$690+항공  
 싱가포르 3박 5일 | \$850+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여 \$940  
 세브란스 (미국국적) 남 \$720/여 \$770

2025		2026년 여행 미리 계획하세요	
09/24~10/04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990+항공	01/21~02/02	신비의 인도 12박 13일 \$3790+항공
09/30~10/13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1/27~02/11	페루&우니사막&파타고니아 15박 16일 \$9990+항공
09/30~10/06	정통 동유럽 6박 7일 \$2790+항공	02/01~02/11	호주&뉴질랜드 10박 11일 \$3190+항공
10/05~10/13	크로아티아 발칸 8박 9일 \$3590+항공	02/03~02/07	코스타리카 4박 5일 \$1990(항공포함)
10/07~10/17	스페인&포르투갈 마감임박 10박 11일 \$3390+항공	02/07~02/15	바하마 크루즈(뉴저지 출발) 8박 9일 \$1599(인사이드), \$1899(가려진 발코니)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2/19~03/06	아프리카&두바이 15박 16일 \$12500+항공
10/14~10/24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마감임박 10박 11일 \$2990+항공	02/25~03/02	페루 일주 6박 7일 \$2990+항공
10/20~10/28	튀르키예 일주 8박 9일 \$1990+항공	02/26~03/07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 10일 \$3590+항공
10/21~10/3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마감임박 10박 11일 \$2990+항공	03/16~03/28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 13일 \$5490+항공
10/28~11/07	고품격 고국일주 6차 마감임박 10박 11일 \$2990+항공	03/16~03/23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 8일 \$3190+항공
11/21~12/02	이집트 두바이 \$3899+항공	06/23~07/03	페루 일주 6박 7일 \$2990+항공
11/23~11/27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04/14~04/2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29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490+항공	04/22~05/02	정통 서유럽 \$35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7박 8일 \$2490+항공	04/29~05/12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4/29~05/05	정통 동유럽 6박 7일 \$2790+항공
05/04~05/12	발칸 크로아티아 8박 9일 \$3590+항공	08/01~08/14	북유럽 4개국+발틱 3국 13박 14일 \$5990+항공
05/05~05/15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990+항공	08/04~08/14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990+항공
05/11~05/21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 11일 \$2990+항공	08/07~08/12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1690+항공
05/12~05/22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390+항공	08/13~08/19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05/19~05/29	서유럽 3개국 10박 11일 \$2990+항공	09/04~09/07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5/22~05/25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9/08~09/18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6/09~06/17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 9일 \$4590+항공	09/15~09/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06/10~06/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9/23~10/03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990+항공
06/16~06/26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한) 10박 11일 \$2990+항공	09/29~10/12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6/17~06/28	영국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09/29~10/05	정통 동유럽 6박 7일 \$2790+항공
06/20~07/03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990+항공	10/01~10/14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06/23~07/03	북유럽 4개국 \$4990+항공	10/04~10/12	발칸 크로아티아 8박 9일 \$3590+항공
06/30~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1690+항공	10/06~10/16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390+항공
07/01~0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10/08~10/18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7/07~07/17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10/13~10/23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07/14~07/22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6890+항공	10/20~10/30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 11일 \$29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60년간 언론계 선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 담아주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자리 모인 재계 리더들 소통의 장  
류진 “글로벌 미디어로 우뚝 서달라”  
허동수·조원태 등 인사들 두루 모여  
창업 3~4세들 원로 찾아 인사하기도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고 있는 재계의 리더들이 사회 각계 인사들과 소통하는 현장이었다.

17일 열린 기념식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권오갑 HD현대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 홍석조 BGF그룹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 이영관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이사장 등 대기업 총수 및 원로 전문경영인들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그룹 회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권혁웅 한화생명 부회장 등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에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조희대 대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영춘 고용노동부 장관, 강정현 기자

신동빈 회장은 “지난 60년간 국내 언론계를 선도해 온 중앙일보가 앞으로도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담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재계 리더들도 한자리에 다 모였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허서홍 GS리테일 대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그룹 부회장,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장선의 동국제강 전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정대현 삼표그룹 수

석부회장,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 박대준 쿠방 대표 등 40~50대 젊은 기업인들은 웰컴 리셉션부터 각계 인사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소통했다. 4대 그룹의 한 부사장은 “창업 3~4세 젊은 경영자들이 각계 원로를 찾아가 직접 명함을 전달하고 인사드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본행사에서 1965년 창간 이후 혁신을 거듭한 중앙일보가 한국의 역동성과 회복탄력성을 기록해 온 영상이 소개되자 재계 리더들은 고객을 끄덕이

며 감상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도 “간결하면서도 아주 깊이 있게 그간의 역사를 보여줘서 참 좋았다”고 평가했다. 소리꾼 장사익과 국악인 송소희의 축하 공연에선 재계 총수들도 한 명의 관객으로 돌아가 영상과 소리가 어우러진 공연을 한껏 즐기는 모습이였다. 재계에선 중앙일보가 앞으로도 균형 있고 신뢰받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류진 회장은 “정론직설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

한국 발전과 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왔다”며 “다가오는 AI 시대에도 한국은 물론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우뚝 서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김윤삼양홀딩스 회장은 “사람의 60년도의 미가 남다른데 ‘60년 기업’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큰 의미가 있다”며 축하의 뜻을 밝혔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더 넓은 세상과 더 많은 이를 이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현·최선을·이우림 기자

## 장동혁·김병기·조국·이준석 나란히... 갈등 잇은 ‘만남의 장’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총출동  
김병기·송언석·조국, 꺾속말하기도  
강훈식, 장동혁 찾아가 악수 청해  
조희대 “언론·법원은 사회의 소금”

갈등의 폭풍 속에 있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잠시나마 ‘만남의 장’이 열렸다. 17일 열린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인사 외에도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입법·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갈등 국면에 있는 인사들도 이날 오전만큼은 악수와 덕담을 나눴다. 최근 여론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행사장을 찾았다. 조 대법원장 도착 직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축하사에서 “중앙일보가 불편부당 정론직필 정신으로 토론과 소통의 장을 열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장진영 기자

의힘 원내대표가 함께 조 대법원장을 찾아 인사를 건넸다. 조 대법원장은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던 중 턴 벤틀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셀카(셀프카메라)’ 촬영 요청에도 응했다. “심려가 많겠다”며 위로하는 김종민 전 국민의힘 비

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조 대법원장은 “아닙니다”라고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중앙일보를 향해 “언론과 법원은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사회가

정도를 견는 데 있어 언론이 법원과 함께 같은 바른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중앙일보가 우리 사회의 중심 언론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해 달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나란히 앉았다. 보수정당 인사 사이에 진보정당 인사들이 끼어 앉은 모습이였다. 불편한 모습이 연출될 거란 예상과 달리 ‘김병기·송언석·송언석·조국’ 등 옆자리에 앉은 이들끼리 꺾속말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중앙일보가 60년간 한국 사회의 중심을 잘 잡아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60년간 건전한 여론 형성과 역동적 사회 발전에 기여했던 것처럼 향후 60년도 미디어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란다”고 덕담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자신보다 늦게 도착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먼저 찾아가 악수를 청했다. 행사장에는 이들 외에도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영익·김보름·조수빈 기자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Watts & Park

## “교통사고는 왓츠 & 박”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폼

##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 “중앙일보는 내 인생의 출발점” “스포츠 미디어 주도 기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문화·체육 인사들 각별한 인연 공개 박항서 “베트남 진출 때부터 큰 힘” 엄홍길 “히말라야 완등 현장 취재” 조훈현·이세돌·강수진 등 자리 빛내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했던 어린 시절부터 중앙일보를 봤다. 문화적 소양을 이 신문을 통해 쌓은 것 같은데, 중앙일보가 60주년을 맞았으니 감회가 새롭다.”

17일 기념식을 찾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최 장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박정자·유동근·전인화 배우, 선승일희망재단 이사장, 윤호진 에이콤피인터내셔널 대표,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전인건 간송미술관장,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박상준 민음사 공동대표, 김영진 미래엔 그룹 회장, 조훈현·이세돌 바둑기사,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육상팀 감독 등이 한자리에 모여 중앙일보에

축하 인사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은 “60년을 끌고 온 중앙일보가 앞으로도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신문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축구 칼럼과 월드컵 관전평 등으로 중앙일보와 인연을 이어왔다”면서 “앞으로도 의미와 재미를 함께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스포츠 미디어를 선도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행사 시작 전부터 행사장은 반가움을 나누는 인사말로 가득 찼다. 허구연 KBO 총재는 과거 KBO 수장이었던 정운찬·정대철 전 총재를 만나 인사를 나눴다. 허 총재는 이날 처음 만난 ‘바둑 전설’ 조훈현 바둑기사가 “요즘 야구 인기가 엄청나다. 우리 둘째 사위도 야구를 정말 좋아한다”고 인사하자 “(조훈현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승부’를 감명 깊게 봤다”고 화답했다. 류지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평소 뵈기 어려운 다른 분야 명사들도 만날 수 있는 자리라 뜻깊다”고 말했다.

저마다 중앙일보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펼쳐놓기도 했다. 박항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베트남 진출 초창기에



1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에서 국악인 송소희가 축가로 ‘내나라 대한’을 부르고 있다. 장진영 기자

현지까지 건너와 여러 차례 인터뷰하고 소식을 전한 중앙일보의 관심과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오늘 행사의 의미를 잘 알기에 미리 잡아놓은 베트남 현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다”고 말했다.

엄홍길 대장 역시 “히말라야 16좌 완등을 현장 취재해 준 중앙일보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축하공연을 한 소리꾼 장사익도 “마흔 다섯에 늦깎이 데뷔한 나를 가장 먼저 주목한 매체가 중앙일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에서 발간한 『계간미술』에서 1978~83년 기자 생활을 했던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중앙일보는 내 인생의 출발점”이라며 “여기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공을 살려 국립중앙박물관장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은 “중앙일보 60년 독자”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나라가 되는 데에 중앙일보 역할이 크다. 참여한 매일수록 균형을 잡아주는 언론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혜리 기자

## 박종철 특종부터 디지털 전환까지 중앙일보 60년 ‘미디어 혁신’ 소개

창간 60주년 기념식 이모저모 장사익 ‘사람이 사람을 만나’ 열창 송소희 공연 댄 박근혜 ‘엄마 미소’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결이 튄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네 ~”

흰색 두루마기에 고무신 차림의 소리꾼 장사익(77)이 노래하는 사이, 초대형 스크린(너비 34m, 높이 4m)에는 굽이치는 물결이 산천초목을 잇는 산수화 영상이 흘러갔다.

17일 기념식에서 장사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결을 터 온 중앙일보 60주년을 축하한다”며 ‘사람이 사람을 만나’를 불렀다. 마종기 시인의 시 ‘우화의 강’에서 일부 구절을 따 그가 직접 선율을 붙인 곡이다. 정재열(목원대 교



17일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에서 축가로 부른 장사익(왼쪽)과 송소희, 전만규·김경록 기자

수) 기타리스트가 반주에 나섰다.

이날 무대 스크린에는 중앙일보 60년을 압축하는 ‘대한민국 트리거 60’ 영상이 펼쳐졌다. 전후 최빈국에서 21세기 매력 국가로 도약하기까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특종 등 중앙일보가 사회 최전선에서 담당한 역할이 격변의 근대사 속에 파노라마로 흘렀다.

가로쓰기 및 섹션신문, 베를리너판 도입, 일요판 중앙SUNDAY 창간, 디

지털 전환 등 미디어를 선도한 ‘도전과 혁신’도 소개됐다.

마지막 무대는 1997년생 국악인 송소희가 ‘내나라 대한’으로 수놓았다. “대한이 살아온 길은/ 그 힘으로 일어나/ 우리들 사는 이 땅 위에서/ 꽃을 피우자”는 노랫말이 환한 웃음과 함께 끝나자 객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참석자가 ‘엄마 미소’를 짓는 모습이 중계 영상에 포착됐다.

강혜란 문화선임기자

## 교육·언론·법조·의료계도 대거 참석

장대환·홍두표·임채정 등 언론인 서울대총장, 변협·의협 회장도 찾아

중앙일보 창간 60주년을 맞아 교육계에선 “중앙일보는 국내 최초의 대학평가 등으로 교육과 미래에 대해 꾸준하고 각별한 애정을 가졌던 언론”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의 든든한 길

잡이가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을 공정하게 보도록 더 나은 공교육을 향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주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AI 혁신의 시대를 선도하고, 특히 국가 경쟁력의 토대인 대학의 성장과 도전에 지속적

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원종필 건국대 총장, 김진상 경희대 총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정승렬 국민대 총장, 원용길 서울시립대 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 박정은 한국외국어대 총장, 강주호 한국고원단체총연합회 회장도 참석했다.

김성근 POSTECH 총장은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심층 보다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언론계에서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홍두표 TV조선 회장, 임채정 동아일보 사장,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겸 YTN 대주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등이 참석했다.

법조계에선 정계성 김앤장, 이준기

태평양, 김후곤 광장, 이명수 화우, 강석훈 율촌, 정진호 세종, 이광범 LKB 평산, 김지홍 지평 대표 변호사와 이재환 사내변호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앞으로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복지 분야에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후연·이보람·허정원 기자

#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하원장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지몬드 페넌슐라 상담원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하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소를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 9월 가을맞이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 입성기념 20%세일!

102개의 지압봉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등 다양한 기능 탑재

↑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지압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온열 지압 카우치 온열 지압 상감 평상

본토 흙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흙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ECO

##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본토흙침대 100% 생황토

sale sale

## 장운정의 휴표 흙 침대

휴표 흙침대 워싱턴 대리점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휴표 흙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흙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드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솔잎뜸질 찜질효과

원적외선 명품매트

## 휴표 흙 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흙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원적외선 명품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흙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딘 지정 대리점

## 월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7kg 무게, 100% 원목, 100% 안전~

##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지압 마사지!

Made in KOREA

1/40리터

건강다리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해서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안,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십견, 관절염 등 완화 효과

##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150 **\$129**

## NURIEYE-5800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뢰기기

피로한 눈, 뻑뻑함, 눈곱, 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 충혈

\$129

##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 ★히트상품★

##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어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 실드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율 1위 차지

## 일월 개화봉 매트

2020년월 엄그레이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 기모극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속면으로 유도

## 한일의료기

##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 “선출권력이 우선” 주장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전 헌재소장 대행)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 펼쳐야 사법부 권한, 헌법에서 주어진 것 단 국민 납득 못할 땐 제도 개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이 촉발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간 서열 논란과 관련해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는 쟁들이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부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행은 이날 헌법에서 보장하

는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 그런 점들이 다 부족한 게 아닌가 추측해본

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했었다.

문 전 대행의 발언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간 우열을 따지는 것 자체가 헌법적 사고가 아니라는 지적으로 보인다. 헌법은 기관별 우열을 정한 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도록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니 헌법을 읽어보고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행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에 당연히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27년간 외쳤다”며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하면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 전 대행은 재판관 임기 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끌었다. 신혜연 기자

## 조희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한덕수와 논의 안 했다”

여권서 제기한 ‘회동문’에 반박문 퇴근 때 직접 밝히려다 문서 배포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여권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고리로 사퇴요구 등 압박하는 데 대한 대응이다. 지난 5월 10일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가 “민거나 말거나 썰 푸는” 콘셉트인 ‘공짜장철단’에서 처음 제기했다.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정상



명 전 검찰총장, 김중식(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측근)씨 4인이 오찬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골자다. 익명의 녹취 제보가 근거였다.

유튜브 방송이 나간 지 엿새 만인 5월 16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연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이를 공론화했다. 당시 천대업 법원행정처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님이 그럴 분 아니다”라고 했다.

잠시 소강했던 의혹은 부승찬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꺼내 불을 지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정래 대표도 17일 “내란 특검

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이런 내용은 친여 유튜브를 통해서도 ‘조희대 관련 엄청난 게 터진다! 무르익는 대법원장 탄핵’(새날) 등의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의혹 제기만으로 직접 나설 일이 아니다’는 주변의 말과 ‘의혹으로 궁급해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말 중 고민하다가, 워낙 궁급해하니 입장을 선명하게 밝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후 정정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례적인 대선 후보 선거법(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사법개혁의 불이 댕겨졌다. 쇠뿔도 단검에 빠지”고 썼다. 김준영·최서민 기자



한학자, 특검 조사 받고 귀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팀 사무실에서 9시간 반 동안의 조사를 마친 뒤 귀가고 있다. [연합뉴스]

## 권성동 구속, 나경원 구형...수세 몰린 국민의힘, 21일 장외투쟁

대구서 개최, 6년만에 대규모 투쟁

두 차례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권성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자 국민의힘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뿐 아니라 역대 모든 특검 수사를 통틀어 현재 국회의원의 첫 구속 사례로 기록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2019년 국회 파스트트랙 총돌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이 무더기로 징역형 등을 구형 받으며 사법 리스크가 국민의힘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장동혁(사진) 대표는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쯤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권 의원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고 반발했다.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됐다”며 사법부도 겨냥

한장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고,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하고, 파스트트랙 재판을 통해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했다. 권 의원의 구속에 상당수 의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영남 중진 의원은 “증언 외에 돈을 받았다는 명확한 물증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권 의원 영장 기각을 기대하는 의원이 많았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서 사법부마저 여권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정치 수사-재판의 빗장이 풀렸다”고 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 전체를 겨냥지 노심조사하고 있다.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민의힘 전체가 ‘특검 쓰나미’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걱정이다. 11월 선고가 예정된 파스트트랙 총돌 사건도 중요 고비다. 지난 15일 검찰 구형대로 선

고가 이뤄지면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나경원 의원뿐 아니라 송언석 원내대표, 김정재·윤한홍·이민희 의원 등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주말인 21일 대구에서 ‘야당탄압·독재 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 여론전을 통해 반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모든 당협위원회에 동원령을 내리며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선 건 2019년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6년 만이다. 김규태 기자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카중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 김정관 “대형원전 2기, SMR 1기 계획대로 건설해야”

(소형모듈원자로)

“정부 탈원전 기조와 배치” 지적에 산업부 “탈원전 공식화한 적 없어”

“한·미 협상 밀고당기는 과정 놓여 대미 투자, 한국 기업에도 도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다시 ‘탈(脫)원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11차 전기기본에서 정한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흡수해 확대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장이 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존 원전은 안전이 확보되면 수명을 연장해 활용할 수 있지만,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국민 공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지어 당장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엔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안전성과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해 탈원전 회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1차 전기기본은 2035년 전력 수요를 전망해 마련한 것”이라며 “전력 수요와 에너지믹스 필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결국 신규 원전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안정적 전력 공급 차원에서 원전 필요성을 산업부 장관으로서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설명이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원전 산업계를 아우르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원전 산업 측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라며 “정부가 탈원전을 공식화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한국전력·한국수력원

자력이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서로 계약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어 협상이 법과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는 향후 50년간 원전 1기 수

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사용료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를 지급하고,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기자재를 의무 구매하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웨스팅하우스에 거액의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 불공정한 것만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기술 사용료를 10억 달러를 내더라도 10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볼 만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교착 국면을 지나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며 “저도 협상장에서 책상을 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양측이 ‘원완’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원 기자

# 롯데카드 “데이터 1.7GB 털렸다” 더니... 피해자 100만명 넘을 듯

롯데카드 인수 MBK 책임론 부상

롯데카드 해킹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100만 명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반 사태 관련 회의를 열고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는 막바지 단계로 18일 오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출된 용량이나 회원 규모로 추정하면 피해 규모는 100만 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고객 수(법인 제외)는 지난 달 기준 964만5000명이다. 롯데카드는 2019년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돼 사모펀드 MBK에 인수됐다.

당초 롯데카드가 금감원에 보고한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GB였다. 시장에서 피해자 규모를 수만 명 수준으로 추

산한 이유다.

하지만 당국이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파악한 규모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정보 유출 범위의 예상보다 컸다.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내역뿐 아니라 신용카드 번호와 개인 신용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8일 오후 조작된 롯데카드 사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롯데카드는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카드 재발급이나 해지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서다. 보상을 마련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안에는 탈퇴 회원 대상으로 한 연회비 무차감 환불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다행히 현재까지 유출 정보를 활용한 부정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안해하지 않

아도 된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롯데카드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롯데카드를 인수한 MBK파트너스가 보안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롯데카드가 사용해 온 결제 관리 서버는 약 10년 전 취약점이 발견돼 대부분 금융사가 보안 패치를 설치한 것인데, 롯데카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여신전문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권 사이버 침해 사고는 단기 실적에 치중해 장기 투자가 소홀해진 결과가 아닌지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주요 해킹 사고 ※2025년 4월 이후

회사	원인	피해 현황
SK 텔레콤	4월 해커가 내부망, 통합 고객인증시스템 등에 악성 프로그램 설치해 개인정보 외부로 유출	232만4000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 유출
에스24	6월 랜섬웨어 공격	앱·인터넷 통신망 마비돼 서비스 전면 중단 뒤 5일째부터 순차적 재개
SGI 서울보증	7월 랜섬웨어 공격	시스템 장애 발생한 지 사흘 만에 복구
에스24	8월 랜섬웨어 공격	약 7시간 동안 도서 구매 및 전자책 열람 등 모든 서비스 중단
웹캠 금융그룹	8월 해외 해커 조직이 웹캠금융그룹 계열사 대부분체 웹캠에프앤아이대부 소속 직원 PC 통해 랜섬웨어 공격	러시아계 해커 조직, 1.024테라바이트(TB) 규모의 내부 자료 확보 주장
KT	8월 불법 초소형 기지국(핀토셀)을 통한 일부 사용자 정보 유출 확인	이용자 무단 소액결제 피해. 이용자 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 유출 가능성
롯데카드	8월 일부 서버 악성코드 감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7기바이트(GB) 수준이었으나, 이보다 훨씬 큰 규모로 추정. 정보 유출 및 피해자 규모 조사 중

염지현 기자

# 근로자의 날도 ‘빨간날’ 추진... 김영훈 “내년부터 법정공휴일 지정할 것”

이르면 내년부터 5월 1일이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되돌리고, 이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언론 인터뷰에

서 “내년에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함께 추진해 국민에게 ‘노동절 선물세트’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벌어진 시위에서 유래한 날이다. 전 세계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기념일

이다. 한국도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근로자의 날은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을 새롭게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정공휴일 지정에 앞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이미 착수된 상태다. 김연주 기자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T. 703-652-4265**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우리말 바꾸기

헛갈리는 '되레'와 '외려'

분명 화법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오히려 잘못된 당사자가 펼쳐 뛰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이 닥친다면 “잘못은 내가 해 놓고 되레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떡해!” “잘못한 놈이 외려 큰소리야!” 등과 같이 말하게 된다.

이처럼 예상-기대와는 다르게 되는 경우 '되레'나 '외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도와주려고 한 일이 되려 폐만 끼쳤다” “자기가 잘못하고선 외레 큰소리친다” 등 처럼 '되레' 대신 '되려', '외려' 대신 '외레'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각각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 우선 '되레'는 '도리어'의 준말이다. '도리어'가 줄어들면 '되려'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되레'가 맞는 말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되려'보다 '되레'가 많이 쓰인다는 판단 아래 '되레'가 표준어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려'도 '외레'가 맞는 말일까? 이 경우에는 반대다. '오히려'의 준말로 '외레'가 쓰이기도 하지만 '외려'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경우이지만 모양이 다른 '되레'와 '외려'가 각각 표준어다.

하지만 일반인으로서 같은 구조의 '되레'와 '외레', '되려'와 '외려'로 짝을 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헛갈릴 수밖에 없다. 즉 '되레'가 바른 표현이기 때문에 '외려' 역시 '외레'가 아닌가 생각하기 쉽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크래프트사의 운명



박준호  
시카고 중앙일보 기자

몬텔레트 인터내셔널사는 시카고 다운타운에 본사를 유지하고 있다. 칩스 아호이, 리츠 등의 제품이 대표적인 제품들이다. 그리고 크래프트 푸드 그룹은 2015년 H. J. 하인스와 합병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등장한다.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식품업체 투자회사인 3G 캐피탈과 함께 크래프트 하인즈사를 만든 것이다. 총 비용만 230억 달러가 들어간 거래는 당시 식품업계 최대의 합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병 이후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규모면에서 다른 경쟁사에 비해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에서 왔다. 보다 건강한 음식을 찾는 트렌드는 이제 새로운 대세가 된 상황이었다.

이후 크래프트 하인즈는 자회사를 매각하면서 투자에 나섰다. 분야는 프로틴 식품과 런처블이라고 불리는 학생용 스낵, 도시락 제품이었다. 하

지만 판매 부진은 이어졌고 2024년 기준 크래프트 하인즈의 매출은 3%가 줄어들었다.

결국 크래프트 하인즈는 합병 10년 만인 최근 다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는 글로벌 '데이스트 엘레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하인즈와 필라델피아 크림 치즈, 크래프트 맥앤치즈를 생산하게 된다. '노스 아메리칸 그로서리'사로 불리는 다른 회사는 맥스웰 하우스, 오스카 메이어, 크래프트 싱글스, 런처블과 같은 제품을 만든다.

분할 소식에 합병을 주도했던 워렌 버핏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크래프트 하인즈사의 이사진을 맞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분할 결정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것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크래프트 하인즈의 주식 2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합병 후 주가가 70% 가까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는데 분할 이후에도 계속 주식을 유지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소비자들의 기호와 취향에 큰 영향을 받는 식품사들은 앞으로도 합병과 분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도 시카고에 본사를 둔, 오랫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브랜드가 남아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시카고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즐겨 왔던 과거를 식품점 진열대에서 발견했을 때의 느낌은 여전히 따뜻하기 때문이다.

열린광장

온라인 학위 취득, 과연 바람직한가



김택규  
전 서울감신대 객원교수  
드루대학교, D. Min.

나는 한국의 모교에서 객원교수로 강의를 했었고, 또 이곳 LA지역에 있는, 연관된 분야의 대학에서도 방문 교수로 강의를 했다. 물론 강의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하는 '대면'강의다.

그런데 현대는 모든 분야가 급격히 변하는 시대이므로, 과거의 제도나 방법론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교육계 분야도 그런 추세를 따르고 있는 것 같다.

교육은 옛날부터 '학교'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수준이 있는 '선생님'이 학생들과 대면하여 가르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제도나 방법론에 변화가 오면서, 그중 하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전통과 역사가 있는 대학교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92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던 뉴햄프셔 유니버시티(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는 100퍼센트 온라인교육으로 200여 종의 학사 및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140년 역사의 애리조나 주립대학(Arizona State University)도 온라인교육으로 학위 및 증서(Certificate)를 주는데, 올해 가을학기 신입생 수는 무려 4만2900명이라고 한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등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들도 일부 과목에 대해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캠퍼스가 없고, 사무실 하나를 사용하면서 '대학' 간판을 내걸고 온라인 강의방법으로 학위를 주는 부실 학교도 있다.

특정 신분의 '직책' 양성을 위한 대학교들도 온라인 강의를 채택하고 있다. 내가 방문교수로 강의를 했던 LA 지역의 한 신학대학교는 현재 강의실 대면 교육을 폐지하고, 전면 온라인 강의제

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 및 예산 절감 등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현상들이 바람직한 것일까.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이 온라인 교육으로 달성될 수 있을까. 군과 국가의 지도층을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생각해 보자. 교육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사관학교가 온라인 강의를 채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대학이 단순한 지식의 주입을 넘어, 그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학 캠퍼스에서의 대면 교육은 단순히 학문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교수와 학생 간의 인격적 교류와 영향력, 그리고 학생들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인격적 '성장'을 이루게 했다.

오프라인 교육이 가진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은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물론 온라인 교육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는 장점도 있지만, 대학 교육의 본질인 '인간적 교류'와 '사회적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할 시점에서 서 있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역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 출산율 6에서 0.75로... 인구절벽 막을 기회 세 번 놓쳐

(1960년대 초)

(2024년)

2015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구정책 자문을 해 달라”는 공식 제안을 받았다. “한국인인 내게 왜 인구정책 자문을 요청하나”고 물었더니 요즘 말로 ‘웃픈(웃기는데 슬픈)’ 답이 돌아왔다. “경제는 한국을 따라가고 싶지만, 인구는 한국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베트남은 왜 우리를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했을까.

우리나라의 인구변천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5(2024년 기준)로 전 세계 최저다. 하지만 베이비부머가 태어나던 1960년대 초반 해도 합계출산율은 6을 웃돌았다. 전후 열악한 환경에서 출생 직후 혹은 몇 살 되지 않아 사망하는 아이가 많았던 만큼 출산도 잦았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던 관행도 그와 무관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산아제한에 사활을 걸었다. ‘달아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가 골목길 여기저기에 붙었다. 1984년 합계출산율 1.74로 저출산 국가에 진입했지만 1990년대 후반에야 정부 정책은 출산장려로 돌아섰다. 80년대 중반부터 40년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다. 60여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6명에서 1명 미만으로 떨어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흔히 경제 상황이 좋으면 출산율도 함께 늘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경기가 좋다고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출산율이 바닥을 치는 것은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들면서 ‘경쟁의 강도’가 점점 더 세졌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들 대부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터전을 마련하려고 한다. 다른 도시국가(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등)에서도 유사한 특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 국가들은 출산율이 모두 1미만으로 낮다.

한국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두드러진다. 1970년 인구센서스를 보면 전국 2626만 명 중 서울·경기(인천 포함)에는 약 754만 명(28.7%)이 살았다. 부산에는 159만 명(6.1%)이 거주했다. 54년이 지난 2024년 총인구는 4976만 명(내국인 기준)으로 늘었다. 이 중 수도권 거주자가 2513만 명(50.5%)이나 된다.

과거에는 지방의 국립대와 명문고 진학도 많았지만 현재는 자녀들을 서울로만 보내려고 한다. 취업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심해졌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결혼이



1 1963년 6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는 구호를 내세운 제1회 가족계획 전국대회가 적십자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2 75년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적극 권장했다. 3 83년 서울의 한 회사는 세 자녀 이상은 입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내걸었다. 4 6 '달아놓고 낳아 줄 거냐?'는 구호도 어느새 '돌도 많다'로 바뀌었다. 5 2000년대 들어서야 인구절벽 위기가 심화하자 출산장려 정책으로 돌아섰다. 신문에 실린 정부 정책 광고. [중앙포토]

나 출산보다는 심화한 경쟁 속에서 '생존'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처럼 수도 외 다른 도시들로 인구가 분산되는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인구 집중으로 인해 경쟁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망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평균 수명(기대수명) 변화도 극적이다. 1970년 평균수명은 남자 58.7세, 여자 65.8세였고, 2023년에는 남자 80.6세, 여자 86.4세가 되었다. 50여년 사이 남자는 22세, 여자는 21세가 늘었다. 상승 속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힌다.

### 남아에서 여아 선호로 바뀐 유일한 나라

무엇보다 극적인 변화는 성비의 전환이다. 정상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4~106명이다. 1980년대 초음파 도입 후 태아 성감별이 가능해지자 남아 선호가 출생성비에 그대로 반영되며 1990년 116.5까지 치솟았다. 첫째가 딸이면 둘째나 셋째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셋째 아

### 89년 저출산에도 산아제한 고수 2005년까지 인구전담 부서 없어

### 젊은 세대들의 수도권 집중 가속 취업·생존경쟁에 결혼·출산 뒷전

### 인구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 지역발전 등 실질적 대안 찾아야

###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이 성비는 무려 189.9에 달했다. 그러나 2024년 출생성비는 105로 정상 범위가 되었고, 셋째 아이 성비는 102.9로 오히려 낮다. 중국·인도·베트남·네팔·이란 등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가 강한 나라가 적지 않지만, 남아 선호에서 여아 선호로 방향을 바꾼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돌아보면 가족계획 자체의 공과를 떠나 정부가 정책의 키를 과감히 돌리지 못해 빛은 실기의 순간은 세 차례였다. 첫 번째는 1989년이다. 당시 합계출산율 1.56은 이미 저출산의 문턱 아래였지만, 정부는 관행처럼 출산 억제 중심의 가족계획을 계속했다. 1984년 이후 출산율은 1명대로 내려간 채 반등하지 않았고, 출생아 수도 1982년 84.8만 명에서 1987년 62.4만 명으로 22만 명이 줄었다. 영아사망률 또한 1980년 신생아 1000명당 17명에서 1988년 8명으로 급감했으니, 출산율이 자연 반등할 이유도 반박했다. 같은 해 일본은 합계출산율 1.57을 '1.57 쇼크'라 명명하고 1990년부터 본격 대응에 나섰다. 우리가 그 지점에서 억제정책을 접고 인구정책의 축을 바꿨다면 오늘 같은 연간 20만 명대 출생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두 번째는 1997년이다. 가족계획은 1996년까지 이어졌고, 합계출산율이 1.54로 떨어진 1997년에야 중단됐다. 뒤늦게 산아제한은 끝났지만, 이후 정부는 인구정책을 통째로 지워버렸다. 인구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설계할 전담조직이 사라진 것이다. 일본은 1.57 쇼크 직후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로 선회했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2 아래로 내려간 베트남은 올 6월 30여년간 유지한 2자녀 정책을 공식 폐지하고 장려로 방향을 틀었다. 반면에 한국은 2005년 보건복지부에 저출산인구정책과가 생길 때까지 책임부서도 없이 8년을 공백으로 흘려보냈다. 2005년 출산율이 1.08까지 추락하자 부랴부랴 조직을 꾸렸으나 과(科) 단위에 그쳐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 이 공백은 결혼 연령의 상승, 출산 지연과 무자녀 선택의 확산을 구조화하는 데 한몫했다.

세 번째는 2020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대부분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범국가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실행한다. 명칭에서 드러나듯 제정 당시 초점은 저출산과 고령화였다. 저출산이 장기화하면서 그 파급은 교육, 내수시장, 노동시장, 연금, 군 병력, 지역 편중 등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인구정책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 내국인 인구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

2020년 정부와 국회는 법령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바꾸어 저출산 문제를 넘어 미래 대응과 준비를 강조하려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4대 국회에서 계류된 끝에 폐기되었다. 현재는 논의조차 사라진 듯하다. 그저 부처별로 흩어진 저출산 대책만 이어질 뿐이다.

인구 감소는 기정사실이다. 이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그레아 2030년대의 혼란을 막고 출산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내국인 인구는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줄고 있다. 감소의 중심에는 청년과 청소년이 있다. 특히 지방의 감소세는 더 가파르다. 정부가 매년 수조원을 투입해 지방 인구 확대를 시도하지만, 한국 인구론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인구가 다시 늘 가능성은 없다. 지방 인구가 늘기도 힘들다.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인구가 증가하려면 출생이 사망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2024년 사망자는 35.8만 명이었고, 고령층이 많아 매년 더 늘어날 것이다. 베이비부머가 본격 사망기에 접어들면 매년 70만 명이 사망한다. 반면에 2030년 중반까지 출산율이 1 이상으로 올라도 연간 출생아는 30만 명을 넘기 어렵다. 임마가 될 여성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노력해도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작년에 태어난 23.8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4%가 수도권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출생자가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작다. 인구분산을 통해 '경쟁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지만 쉽지 않다.

이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할 때다. 인구를 과거로 되돌리려만 애쓸 일이 아니다. 이미 현실화했고 발생할 것이 분명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구의 크기와 구조에 맞는 사회 작동 방식과 질서를 찾아야 한다. 출산율 저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각종 정부의 대책(지방균형 발전, 일과 가정의 양립, 주거 대책 등)은 계속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을 때다. 인구는 사회와 시장을 구성한다. 인구가 바뀐다는 것은 사회와 시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행히 인구 변동은 거의 정확히 예측이 가능하다. 앞으로 변화할 사회와 시장에 적합한 대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인구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들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 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시 설**

**검증 없는 '비밀회동설'로 조희대 흔들기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의혹 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초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외부 인사들과 만나 논의하며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물론 거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사실 이 의혹은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넉 달 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 '의명 제보 녹취록'을 공개하며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당시 녹취 내용은 전연의 전연 수준에 불과했고, 확인된 증거도 없었다. 그랬던 의혹을 이번엔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이 들고나왔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이 일제히 조 대법원장 공격에 나선 것이다. 저의가 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사실상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대표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에 관해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 만큼 이제 공은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에 넘어갔다. 새로운 증거를 내놓든지, 아니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면책특권이 부여된 국회의원의 발언이라도 '아니면 말고' 식 의혹을 제기할 권리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번 일은 2022년 김의겸(현 새만금개발청장) 전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벽까지 술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주장을 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완벽한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내용도 황당했던 데다 기본적인 검증조차 건너 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폭로였다. 비록 법원이 1심에서 김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렸지만,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 형사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면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근거도 불확실한 의혹 제보를 빌미로 사법부를 공격한다면 결국 법치주의의 신뢰는 무너지고 만다. 이런 식으로 면책특권이 음해와 선동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정치 혐오도 커질 것이라 점을 명심해야 한다.

**면책특권 뒤에 숨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떠올라 넉 달 전에도 제기, 사실 아니라면 엄중히 책임져야**

**금융 취약층 보호도 시장 원리 흔들지 말고 해야**

금융 취약층의 필수적인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적 금융은 진보·보수를 떠나 어느 정부든 추진해 온 정책이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금융 약자의 경제 기회 확대를 돕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자산의 불평등이 커지고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소외 문제가 부각되면서 주요 20개국(G20)과 주요 국제기구 역시 포용금융(Financial Inclusion)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포용금융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정책 목표지만 제도가 잘 설계되지 못하고 일방적인 시혜성 복지정책으로 접근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취약층의 자립 기반을 무너뜨릴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연체 기록이 삭제된 금융권 채무자 셋 중 하나는 다시 연체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7만 명 중 96만 명(33%)이 다시 연체 기록을 남겼다. 정부의 반복적인 신용사면이 실효성은 떨어지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포퓰리즘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올해 말까지 5000만원 이하 채무자 324만 명에 대해 빚을 갚으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줄 방침이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성실 채무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셈이다.

당장에서 쏟아지는 금리 발원도 문제가 많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서민에게 15.9% 고금리는 잔인하다"면서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올리면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그만큼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저소득자에게 고금리는 역설적"이라고 했다. 금리는 원리금을 때릴 위험을 반영한 시장가격이다. 돈을 갚지 못하는 신용 위험이 큰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게 금융의 기본이고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표현했던 15.9%의 금리에는 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특례보증 이 절반 이상 들어갔다.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의 경우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해 보증을 선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준 게 지난해 말 25.5%에 달한다. 서민을 위해 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면 금융시장의 가격체계를 흔들 게 아니라 소비쿠폰 같은 일회성 예산을 줄여서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게 정공법이다.

금리든, 대파 가격이든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게 경제학의 오랜 가르침이다. 합창하듯 터져나온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의 금리 언급이 시장 원리를 가버려 여기는 현 정부의 과도한 개입주의적 편향을 드러낸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는 착각**



**김정하의 시사각각**  
時 視 各 角

국회에선 의원들이 공무원에게 "어디 감히 임명직이 선출직에게 대드냐"는 식으로 으박지르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흠그라운드 이점을 활용한 일종의 군기 잡기다. 보는 이에 따라 그런 언행을 불쌍사나운 갑질로 비판할 수도 있고, 명색이 국민의 대표인데 그 정도 쇼맨십은 봐줄 만하다는 반응도 나올 수 있다. 어쨌든 국회의원 한 명이 선출직과 임명직의 관계에 대해 어떤 착각을 하더라도 삼권분립이 흔들리진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완전히 무게가 다르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임명직은 선출직에 대들 수 없다고 못 박으면 삼권분립은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불행히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선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선출 권력(행정부·입법부), 간접선출 권력(사법부)"이라고 말했다. 선거로 뽑은 대통령·국회의원이 임명직인 판사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서열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정치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엄청난 발견이다. 하지만 당연히 사실이 리가 없다. 프랑수아 퐁테스키외는 1748년에 펴낸 『법의 정신』에서 근대적 의미의 삼권분립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퐁테스키외는 한 사람이나 한 단체가 행정·입법·사법을 모두 장악하면 필연적으로 독재와 폭정이 발생하며, 시민의 자유·권리는 삼대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퐁테스키외의 견해를 수용하면서도 대통령제라는 독특한 권력 구조를 고안했다.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간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국가의 표준 모델이 됐다.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삼권이 분립돼 있을 때만 민주주의가 유지된다는 명제는 이제 확고히 입증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는데 왜 판사는 그렇지 않은가. 첫째,

판사는 고도의 법률 전문 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사를 선거로 뽑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둘째, 판사까지 정치 논리로 뽑게 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건국 아버지들의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사법부는 칼이나 지갑을 갖지 않은 가장 약한 권력"이라며, 다른 두 권력(행정·입법)에 대항하려면 판사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국회의원이 판사보다 권력 서열이 앞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착각이거나 정치적 의도가 담긴 왜곡이다. 대통령·국회의원·판사는 각자 독립적인 역할을 맡은 것이며, 특히 판사에게 정치와 여론의 압력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만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꼭 필요하다. 판사들의 주장인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론이 공공연히 사퇴 압박을 가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만큼이나 어처구니없는 반민주적 작태다.

말이 나온 김에 선출직과 임명직의 도

**입법·사법·행정**은 대등한 관계 한 명이 삼권 장악하면 폭정 필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반민주 작태

덕성도 한번 따져보자.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서 드러났듯 선출직의 도덕성이라 봐야 별것 없다. 재산신고는 4억원대로 해놓고 차명 주식 거래로 10억원대를 굴린 이춘석 의원의 경우는 또 어떨까. 법사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법원·검찰을 질타해 놓고 정작 뒤에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국회에서 차명거래가 과연 이 의원 한 명뿐일까. 선출직엔 전과자도 수도룩 하지만 오히려 임명직 고위 공직자들은 젊어서부터 자기 관리에 철저한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진정한 선출직인지도 의문이다. 비례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수 지역구 의원이 공천만 되면 거의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 출신이다. 이들은 사실상 당의 오프가 내리쬐는 임명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그렇게 유세 떨 일은 아니란 얘기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55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국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약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본사 인쇄: 대림인쇄사 |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 영국 FINANCIAL TIMES | 일본 THE NIKKEI | 한국: 서울경제, 한국경제, 한국경제24 | 구독료: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석사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Xray / CT / MRI 리퍼럴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면역력 강화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항산화
- 심혈관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 런치 스페셜 뷔페

(월 ~ 일 11AM ~ 3PM)

## 뷔페 메뉴

스시, 쌈밥, 강된장, 비빔밥, 나물, 육개장, 생선조림, 불고기, 제육, 양념치킨, 탕수육, 돈까스, 생선구이, 소고기 무국, 우거지 된장국, 호박죽, 떡볶기, 김말이, 오뎅, 만두, 잡채, 샐러드, 고구마 튀김, 김치, 깍두기, 밑반찬,...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헤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인

스시 맨, 스시 보조  
(숙소 제공 가능)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SEP. 18<sup>TH</sup> - SEP. 25<sup>TH</sup>, 2025**



**LACTO FIT**® Probiotics  
 락토픽 3세트 선물용



GOLD/8.46 OZ/LIMIT2 ~~REG. \$49.99~~

**\$39.99**



CORE/14.10 OZ/LIMIT2 ~~REG. \$59.99~~

**\$49.99**

**Glasslock**

**Food Container  
 Purple Edition  
 Set of 5**  
 글라스락  
 퍼플에디션 5개 세트

**\$11.99**



400 mL X 3 EA + 490 mL X 2 EA/SET  
 PRODUCT OF KOREA/LIMIT2  
~~REG. \$19.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파이낸스 & 연예/문화**  
부동산·금융·회계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September 18, 2025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경험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담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주택 감정 이의 제기, 의회 손에 달렸다

‘소수계 지역 감정이 낮다’에  
소유주에 재감정 요구권 부여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자  
연방상원 의무화 법안 심의



주택 소유주가 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주택 감정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수계 밀집 지역 주택이 백인 지역과 유사한 조건임에도 감정이 낮게 책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과 가치 평가 공정성 (PAVE)’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PAVE를 해산하자 의회가 이에 반발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주택 가치 평가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주택 감정 과정에서 인종 편향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언론 보도에 대응해 2021년 PAVE를 출범시켰다. 이는 주택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돼 손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감정업계 감독을 강화하고, 주택 감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한 조치였다. 당시에는 감정에서 인종 간 격차가 줄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감정사에게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PAVE 태스크포스의 핵심 정책인 ‘감정 재검토

절차’, ‘재검토 유예 연장’, ‘공정 주택 감정 준수와 감정사 자격 강화’ 등을 공식 철회했다. 이 조치로 감정 결과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의무화 절차가 폐지됐다. 이어 7월 10일에는 국토주택도시개발부(HUD)와 예산관리국을 통해 PAVE를 사실상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스콧 터너 HUD 장관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에 대한 집착과 과도한 규제는 끝났다”고 말했다.

의회는 곧바로 반발했다. 트럼프 정부가 PAVE를 철회한 지 일주일 만인

7월 17일, 민주당 라파엘 위녹 상원의원(조지아주)이 ‘주택 감정 현대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대출 기관에서 수집한 감정 등 가치 평가 관련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해야 한다. 또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주택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될 경우 ‘가치 재고려 (ROV)’나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 절차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포괄적 패키지 법안인 ‘아메리칸 드림 기회 되살리기 주택 법안(ROAD to Housing Act)’에 포함돼 7월 29일 연방상원 금융주택도시문제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모기지브로커협회(NAMB)와 공정주택 단체들은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로써 주택 감정의 공정성 문제는 다시 연방 차원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주류 언론은 해당 법안을 주택 감정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은 PAVE 폐지와 반대 법안 발의가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정책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했다.

비상장 모기지 대출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뉴아메리칸펀딩은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무관하게 공정성 확보를 지지했다. 오픈카운티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고객의 약 2.5%가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중 22%에서 실제 오류가 확인돼 재조정된다”며 자체적으로 감정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주택 시장, 바닥 다지는 신호 감지”

NDR 고객 보고서 발표  
주택 시장이 장기간의 침체를 끝내고 서서히 균형을 찾아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높은 모기지 금리와 사상 최고 수준의 집값으로 수년

간 주택 구매를 미뤄왔던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다. 시장조사업체 네드데이비스리서치(NDR)는 이달 발표한 고객 보고서에서 “주택 시장이 마침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고 밝혔다. 이는 주택 거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NDR의 조 칼리시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주택 시장은 점차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며 “여전히 가격은 높은 수준이지만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현재 주택 판매자는 구매자보다 36% 더 많아 2013년 이후 가장 큰 불균형을 기

록했다. 이는 거래가 팍막혀 있는 시장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시장은 네 가지 지표에서 개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공급·수요 균형 회복 조짐= 상무부 자료를 분석한 NDR에 따르면 올해 신규 주택 공급은 약 13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면 ‘주택 시장’으로 계속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부동산 학교**  
5주 속성반  
수업료: \$350 (교재비: \$100)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관한 오시면 100% 합격보장!!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650,000  
• 공사비(후불): \$45,000  
• 수리 후 가격: \$750,000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85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골프, 아주 넓고 이쁘게 잘 꾸민 집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버지니아**  
**\$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꾸민 집, 벽돌, 마루바닥

**\$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드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1,07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민 집, 좋은 가격

**DC**  
**\$649,000**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새로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 ‘손커’라 불리던, 유커가 돌아온다

(큰손)

## 29일부터 무비자 입국

중 국경절 겹치고, 경주선 APEC도 부진한 면세점, 유커 선점에 총력 시내 상권, 중국어 구사 직원 배치 일부선 “짜꿍이 쇼핑? 중국도 불황”

롯데면세점 직원들은 지난 10~12일 2박 3일간 중국을 찾아 발로 뛰었다. 이달 말부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남공표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 등 5명은 1700km가량 떨어진 광저우와 칭다오를 방문해 현지 여행사 등 30여 곳의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리 중국어를 공부해왔고, 일행 모두 한 업체라도 더 만나려 쪽잠을 잤다고 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14일 “무비자 입국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가 유커(游客·중국인 단체

관광객) 맞이 준비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8년만에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국의 황금연휴인 국경절(10월 1~7일)이 있는 데다, 경주에선 10월 31일~11월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같은 특수를 맞아 지난 2017년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이 불거지면서 끊겼던 ‘유커 효과’가 되살아날 것이라 기대가 나온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방문 관광객은 460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1637만 명) 중 가장 많았으나, 사드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6년 807만 명에 비해 43%가량 줄었다.

매출 부진에 빠진 면세점 업계는 유커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 7월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9199억원으로 지난해 7월(1조 659억원)과 비교해 8.6% 감소했다. 사드, 코로나19 사태의 후유증에다 관광객



유통업계가 ‘유커 맞이’에 분주하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롯데마트 제타플러스 서울 역점에서 쇼핑하고 있다. [사진 롯데마트]

들의 쇼핑 패턴까지 달라지면서다. 한국관광공사의 조사 결과 올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쇼핑 장소는 로드숍(49.4%)으로 시내 면세점(25.5%)이나 백화점(35.7%)을 앞섰다.

적자를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갈등까지 겪고 있는 신세계·신라 면세점은 유커 효과를 통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객단가

가 높은 소규모 단체 유커에 집중하고 있다. 씬스미가 큰 유커를 공략해 많은 매출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요즘 의료·미용 등의 목적을 가진 투어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매장 단독, 고급 브랜드 위주로 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은 중국 현지 사무소를 통해 기업 등의 단체 관광객 유커에 애쓰고 있다.

백화점 업계도 유커 맞이에 분주하다. 롯데백화점은 알리페이·위챗페이 등으로 결제 시 할인해주고, 명동과 잠실에서 관광객 대상 행사를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중 ‘신세계 글로벌 쇼핑 페스타’를 열어 관광객이 선호하는 패션·뷰티 상품을 할인한다.

요즘 ‘K쇼핑 성지’로 꼽히는 일명 ‘올무다(올리브영·무신사·다이소)’도 특수를 노리고 있다. 서울 시내 핵심 상권 중심으로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들을 다수 배치하거나 중국어가 적힌 안내문 등을 늘리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달 중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 계정을 개설해 상품을 홍보한다.

다만, 유커 무비자 입국의 특수를 장담하기 어렵단 시각도 있다. 중국 경기가 불황인 데다,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 트렌드가 단체보다 개인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유커의 ‘짜꿍이 쇼핑’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번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유커에 친화적인 환경을 다시 조성한다면, 장기적으로도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영 기자**

## 관세 폭탄에 커피 소매가격 ‘앗 뜨거워’

작황 부진 겹쳐 값 폭등  
전년 동월대비 21% 올라

국내 커피 소매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등 주요 커피 산지의 작황이 부진한 데다 관세 폭탄까지 겹치면서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지난 11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커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 이는 1997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8월 기준 식품점에서 판매되는 커피 하루 가격은 파운드당 8.8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 등 주요 커피 수출국의 흉작으로 글로벌

커피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내 커피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해운 데이터 업체 비지온(Vizion)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커피 물량은 올해 들어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특히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75% 이상 급감했다. 베트남·콜롬비아 등 다른 주요 커피 생산국의 수입 물량도 부족분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선물 가격은 기후변화에 따른 브라질-베트남 주요 산지 작황 부진으로 이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IN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테이스

에이에는 재고가 충격을 완화하고 있지만 “미국인들이 평소처럼 커피를 마신다면 재고에도 한계가 있다”며 추가 수입이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어디에서 조달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된 커피가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 데 최대 20일이 걸리고 이후 로스팅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관세 영향의 상당 부분이 10월이나 11월이 되어야 소매 매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업계는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구해왔다. 앞서 지난주 백악관은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시 커피를 포함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을 발표했다고 FT는 전했다.

## 젊은층, 주택보다 주식 투자 선호

작황 부진 겹쳐 값 폭등  
전년 동월대비 21% 올라



젊은 세대가 주택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JP모건은 “Z세대는 (금융)투자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이들이 주택시장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은행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젊은 세대의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어 작년에는 25세 인구의 37%가 개인투자 계좌에 자금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2015년 25세 인구 중 6%만이 계좌에 자금을 추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JP모건은 “이것은 젊은 세대의 자산

축적 습관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주택시장 상황이 저축의 배분을 바꾸고 있고, 주택 자산보다 주식 같은 금융 자산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거나 접근 가능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시장은 가계의 핵심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젊은 개인이 첫 주택 구매자가 되는 경우가 줄고 있고 투자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 ‘면 주택 시장’에서 계속

반면 주택 수요는 약 85만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이 경우 수요는 연말까지 약 110만 가구가 부족하지만 연초의 160만 가구보다 개선될 수 있다. 공급 부족 완화는 주택 가격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공실률 정상화** = NDR은 최근 몇 년간 증가했던 렌트와 자가 주택 공실률이 올해 역사적 평균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렌트 공실률은 정상치인 7%에 도달했으며, 자가 주택 공실률도 1.5%로 안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 **소득 대비 주택 가격 하락** = 주택 구

매 여력을 보여주는 중위 주택 가격 대비 중위 소득 비율은 최근 고점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비율은 2006년 버블 시기를 수준을 웃도는 5.4까지 올랐으나 현재 4.9로 내려왔다. 4.9년 치 연소득을 모두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 중위 매매가는 41만800

달러로 2022년 고점이었다던 44만2600달러보다 낮아졌다. 같은 기간 실질 개인 소득은 5%가량 증가했다.

▶ **주식 대비 가격 하락** = NDR은 주택 가격이 건설 대체 비용 및 주식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부동산 가치의 대체 비용 대비 비율은 1분기 말 169.5%로 하

락했다. 즉, 시장에 있는 주택의 가격은 동일한 가치의 집을 짓는 비용보다 약 1.7배 비싸다. 상장 기업 시가총액 대비 비율도 69.8%로 낮아졌다. 가계가 보유한 주택 가치가 전체 주식시장 규모의 약 70% 수준으로 부동산 가치가 주식시장과 비교해 덜 비싸졌다는 의미다.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주택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잘 생긴 싱글룸
주택	8350 Greensboro Dr, McLean, VA	UNDER CONTRACT	\$445,000	바이어가 꼭 원하는 조건의 집
주택	8512 Pine Sp, Severn, MD	UNDER CONTRACT	\$650,000	2.75% 균인 용자 그대로 이어받은 상당히 좋은 조건의 계약 성공
주택	6110-A Hoskins, Centreville, VA	SOLD	\$480,000	손님이 꼭 원하는 조건의 집을 경쟁해서 이겼. 이기는 오피 자신 있음.
주택	1631 Cecile St, McLean, VA	SOLD	\$1,420,000	세입자 퇴거 다음 날 세물먼트, 주인 (셀러) 이름으로 유틸리티 오픈할 필요 없음
주택	1930 Battery Park, Vienna, VA	SOLD	\$1,315,000	여러 오피 경쟁 돌고 득템. 이기는 오피 자신 있음.

**갤럭시부동산**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올 여름/가을에 따른 나을 주택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8월 말- 12월 말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RENT	주재원, 공방에서 바로 입주
8380 Greensboro Dr, McLean, VA	3년 RENT	주재원, 공방에서 바로 입주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VA	1년 RENT	주재원, 공방에서 바로 입주, 1년 렌트는 팔 안 주는데, 주인이 에이전트를 알아서 사들이라 받아줌.
11828 Dinwiddie Dr, Rockville, MD	3년 RENT	주재원, 세입자, 특히 가족이 좋아함
14010 Tanners House Way, Centreville, VA	3년 RENT	주재원, 이전 세입자 4년 살고, 하루의 공실 없이 3년 렌트 이어감
11357 Ridgeline Rd, Fairfax, VA	2년 RENT	사랑하는 고민
3484 Beale Ct, Woodbridge, VA	8/10 입주가능 RENT	\$2,200 2층 2방, 3.5, 5, 부엌 리모델링, 교통 상권 편리

**리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그의 30여년 더 있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취업이민
- 종교이민
- 투자이민 (EB-5)
- 간호사(RN)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 종교비자 (R)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http://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뿔뿔) (한국어 상담)

버지니아 오피스 **703-246-9100**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 세금 이연 효과 동일, 가족 혜택·기부 의사 차이

## 양도소득세 관리와 상속 DST와 CRT 활용 가이드

오랜 기간 보유해 온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비상장 회사 지분을 매각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은 세금이다. 매각이 이뤄지는 순간 양도차익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세금이 곧바로 발생한다. 연방세와 순투자소득세, 그리고 거주 주의 세금을 모두 합치면 세율은 30%를 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금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지고, 그 대안으로 양도세 연기 신탁(DST: Deferred Sales Trust)과 자선잔여 신탁(CRT: Charitable Remainder Trust)이 주목받는다.



양도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족 중심의 상속 전략으로 DST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가족 외부의 자선에 초점을 맞춘 CRT도 각광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목표에 맞는 설계 단계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한다.

### 공통점: 세금은 뒤로 미룬다

DST와 CRT는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 원리는 유사하다. 두 구조 모두 매각이 일어나는 시점에 세금을 확정해 내는 대신 신탁을 거쳐 매각을 진행함으로써 세금을 뒤로 미루는 효과를 만든다. DST에서는 자산을 신탁에 넘기고 신탁이 매수자와 거래를 진행한다.

매도자는 매각대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신탁으로부터 분할 지급을 받는다. 이때 세금은 분할금이 지급될 때마다 조금씩 인식된다. CRT의 경우에는 자산을 자선신탁에 출연하고 신탁이 이를 매각한다.

신탁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매각대금을 온전히 재투자할 수 있다. 이후 신탁은 매년 일정 비율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수익자는 이 분배금을 받을 때 과세된다. 결국 두 제도 모두 세후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지연시키고 세전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 차이점: 누구에게 남기는가

DST와 CRT의 가장 큰 차이는 자산의 최종 귀속처에 있다. DST는 민간 계약에 기반한 사적 신탁 구조로 매각대금을 가족이나 본인이 나누어 받도록 설계한다. 결국 신탁 종료 시점에 자산은 가족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

세금 혜택은 양도세 이연 효과에 한정되지만 운용 제약이 적고 투자 선택

## 부동산·사업체·주식·비상장 지분같은 모든 매각 대상 자산 DST는 투자자산 선택 자유도 높아...CRT 전통 투자자산 위주 본인과 가족의 철학과 자산 성격, 목적 따라 다른 선택 가능해

의 자유도가 높다. 반면 CRT는 IRS가 규정한 자선신탁으로 반드시 매년 최소 5% 이상의 분배가 이뤄져야 하고 종료 시 남는 자산은 자선단체에 귀속된다.

대신 CRT는 세금 이연과 함께 기부금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제도가 IRS에 의해 명문화되어 세무적 안정성이 DST보다 훨씬 높다. 요약하면 DST는 가족 자산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CRT는 세금 절감과 자선 기부라는 요소를 함께 담는다.

### 어떤 자산을 넣을 수 있나

DST와 CRT는 모두 매각이 가능한 자산을 신탁에 출연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이다. 아파트, 상업용 빌딩, 토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다. 반드시 에스ক্র로가 종료되기 전에 신탁에 자산을 넣어야 한다는 점이다. 매각이 끝난 뒤 현금화된 자산은 신탁에 넣지

도 세금 이연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집중 보유하고 있던 상장 주식이나 IPO 직후 매각하려는 지분을 신탁에 넣으면 세금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비상장 회사 지분 역시 가능하지만, 평가 절차와 매각 구조 설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정리하면, DST와 CRT에 넣을 수 있는 자산은 부동산, 주식, 비상장 지분과 같은 매각 대상 자산이다.

### 신탁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산

자산이 신탁에 출연되고 매각이 이루어지면 그 대금은 신탁 내부에서 재투자된다. 이때 어떤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지가 DST와 CRT의 차이를 드러낸다. DST의 경우 비교적 운용 제약이 적고 투자자산 선택의 자유도가 높다. 주식, 채권, ETF, 뮤추얼펀드, 심지어 구조화 상품까지도 운용할 수 있다.

반면 CRT는 IRS 규정에 따라 운용 시 제약이 따른다. 가장 큰 제한은 UBTI, 즉 무관영업소득 발생을 막아

야 한다는 점이다. 부채가 얹힌 부동산, 파트너십 지분, 마진 거래가 포함된 상품 등은 신탁 소득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만들 수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한다. 따라서 CRT에서는 일반 주식, 채권, ETF, 뮤추얼펀드 등 비교적 단순하고 세법상 문제가 없는 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CRT는 매년 최소 5% 이상의 분배를 해야 하므로 분배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인컴형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 절차와 유의할 점

DST의 경우 매도 계약 전 신탁을 설계해야 한다. 자산을 DST에 양도하고 DST가 매수자와 거래를 체결한다. 매도자는 매각대금을 바로 받지 않고 신탁으로부터 분할 지급을 받게 되며 세금은 그때마다 분산 인식된다. 다만 DST는 세법에 명문화된 제도가 아니어서 IRS가 사후에 문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CRT는 공식적인 제도다. 신탁 문서를 작성하고 자산을 출연한 후 신탁이 매각과 재투자를 담당한다. 이후 신탁은 매년 정해진 지급률을 수익자에게 분배하고 종료 시 잔여 자산은 자선단체로 넘어간다. CRT를 활용하려면 매

각 전에 반드시 신탁을 세워야 하며 매년 분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UBTI 자산을 피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실제 활용 시나리오

가족 상속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DST가 적합하다. 세금을 늦추면서도 자산을 전부 가족에게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절감과 기부금 공제, 그리고 평생 인컴까지 동시에 원하는 경우라면 CRT가 더 맞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하고 남는 자산은 자선단체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CRT는 매력적인 선택이다.

다만 이 경우 자녀에게 남길 자산이 줄어들 수 있어 이를 보완하려면 생명보험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CRT에서 나온 인컴 일부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망보험금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1031 교환을 고려할 수 있지만 교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DST나 CRT가 대안이 된다. 단, 매각 전에 반드시 구조를 세팅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투자 성향에 따라 DST는 운용 자유도가 크고, CRT는 안정적인 인컴 스트림 설계에 유리하다.

### 상황별 선택 가이드

상황에 따라 선택지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DST가 맞다. 세금은 늦추되 자산은 가족에게 전부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절감과 기부금 공제를 함께 받고 평생 인컴을 확보하고 싶다면 CRT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DST도 인컴 확보를 위해 설계할 수 있다.

한편 CRT를 선택하면서도 가족 상속을 보완하고 싶다면 ILIT 같은 보험 전략을 함께 쓰면 된다. 그리고 두 구조 모두 공통적으로 반드시 매각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매각이 끝난 뒤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DST와 CRT는 모두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세전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하지만 DST는 가족 중심의 상속 전략이고, CRT는 세금 절감과 기부를 동시에 달성하는 자선 전략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켄 철퍼스 자산관리 대표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클립턴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스프링필드 타운홈
<b>\$1.5M</b>	<b>\$3,300</b>	<b>\$3,000</b>	<b>\$3,000</b>
방5/화4.5/차고3, 1.05 에이커 새 지붕, 새 HVAC	방3/화2.2/차고1, End Unit 편리한로케이션, 관리잘 된 집	방3/화2.5/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 할, 굿로케이션	방2/화2.2, 2 Assigned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함, 교통편리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사업체 세금 보고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li> <li>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li> <li>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li> <li>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체, 사업체 설립</li> <li>비영리 단체 설립</li> <li>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li> <li>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li> <li>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li> <li>직원 복지 / SEP, 401K</li> <li>오바마케어 / 메디케어</li> </ul>

# “공립학교 내 기도권 보호 곧 발표”

종교자유위원회 2차 공청회  
트럼프 “교육부 지침 나올 것”  
구체적 내용·시기는 안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워싱턴 DC 성경박물관에서 열린 종교자유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교육부가 공립학교 내 기도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지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공교육에서의 종교 자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위대한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종교가 필요하다. 나는 그 점을 강하게 믿는다”며 “우리나라 건국의 유대교·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반종교적 선전을 주입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 지침을 예고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이나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학생 개인의 자발적 기도는 현재도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다.

행사는 파울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자문위원과 팸 본디 법무장관 등이 배석했으며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의 기도로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항상 기도의 힘을 믿어온 나라”라며 “자유와 주권,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황금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는 말로 연설을 마치고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연주되는 가운데 퇴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워싱턴DC 범죄억제를 위한 주방위군 투입과 반기독교적 편향 제거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권리는 신이 아닌 법과 정부로부터 나온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팀 케인 상원의원을 “무능하다”며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폭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복음주의 목사는 교원노조가 “우리 아이들을 장악하는 아주 은밀하고 악마적인 방식을 조장한다”고 규탄했고, 방송인 필 맥그로우는 “우리는 모두 종교·문화 전쟁의 전투원”이라며 싸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에서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요(Jesus Loves Me)’라고 쓴 마스크 착용을 금지당했다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미시시피주의 학생 리디아 부스 등 젊은 기독교인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오후 세션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불거진 반유대주의 문제와 보수적 가치와 종교적 관점이 공교육에서 억압받는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무슬림 활동가 사미라 문시는

LGBTQ+ 도서 수업에서의 학부모 면제권 보장을 요구하며 “무슬림은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외부인 취급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이후 여러 판례를 통해 공립학교 내 기도를 대부분 금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주에서 종교를 교실에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루이지애나주는 전국 최초로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사본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올해는 아칸소와 텍사스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는 종교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종교 특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보보리 원칙을 수호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워버 변호사는 “학교에서 안전과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못 받는 학생은 학업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행정명령으로 종교자유위원회를 출범했으며, 8월에는 연방 공무원의 종교 표현권을 재확인하는 메모를 발표했다. 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29일 다시 한번 ‘공교육에서의 종교 자유’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안윤희 객원기자

## 체험, 수행, 사고 통틀어 말하는 개념



###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초자연·오컬트 사상 오해  
인간의 궁극적인 실체와  
합일되는 체험하는 사상

신비주의(神秘主義)는 19세기 서구에 동양의 종교가 알려지면서 탄생한 비교종교학적 개념이다. 인간이 궁극적 실체와 합일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상을 말한다.

즉, 초자연적이나 오컬트(occult, 숨겨진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적인 사상이나 현상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신비주의는 체험(experience), 수행(practice), 사고(thought)를 통틀어 말하는 개념이다. 신비체험으로는 입사체험이나 유태이탈 등의 다양한 종교체험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진정한 의미의 신비주의는 신비적 합일체험(mystical union)을 말한다. 즉, 나와 신적인 존재 혹은 우주 전체와 합일하는 경험으로써 나와 세계가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나라는 개체성은 사라지고,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나 자신이 신 혹은 궁극적 실체임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중용에서 말하는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 즉, 하늘의 뜻인 본성(本性, 선한 양심)에 따르면 모두가 ‘한마음’이 된다는 사상과 맥락이 같다.

비교종교학적 입장에서 오르페우스 교단의 미메시스(mimesis, 모방), 기독교의 신과의 합일, 불교의 공(空)과 무아(無我), 도교의 물아일체(物我一體),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상 등이 신비주의에 속한다.

오르페우스 교단의 사상은 부활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비밀스러운 의식을 행했고, 의식을 통해 감정의 공동체적 합일, 즉, 미메시스를 체험한다고 한다.

플라톤도 이 교단의 영향을 받았다. 오랜 방황을 거쳐 하느님(그리스도교 신앙을 의미)과 영혼(영혼을 중시하는 플라톤 철학과의 만남

을 의미) 안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을 아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아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인간을 “죽을 운명의 현존 육체를 사용(집승, 식물, 육체를 의미)하는 이성적 영혼(일자, 지성, 영혼을 의미)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다분히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는 또한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이성적 실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영혼을 중시하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과 함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는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논리적으로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논쟁을 자주 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교도 대판’을 집필하기 전까지, 유럽의 성인은 아우구스티누스였다.

플로티노스는 신 플라톤주의자로서 플라톤이 주장한 이원론, 즉, 진실한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만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에 빠졌다.

스승인 플라톤은 현상세계는 이데아계의 그림자 같아서 불완전하다고 주장했기에, 성령(聖靈) 같은 신과 일반 영혼(靈魂)의 대화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난감했다. 그들이 생각해 낸 것은 유출설이다. 즉, 완전한 이데아 세계에서 참된 영혼의 세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다음으로 흘러넘친 것이 현상세계를 이루었다고 주장했다.

즉, 현상세계는 이데아 세계에서 영혼이 흘러넘친 후에도 이데아 세계의 영혼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즉, 관념의 세계가 현상의 세계와 중간자를 두고 상호작용한다고 했다.

신 플라톤주의자들은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나의 정신이 이데아계에 직접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물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의 물음이 관념의 세계와 현상세계의 자기 자신을 하나로 만든다는 고대 신비주의의 합일 사상을 신봉했다.

## 밀레니엄 세대, 첫 가톨릭 성인에

컴퓨터 영재 카를로 아퀴티스  
코딩 독학 온라인에 신앙 기록  
‘하느님의 인플루언서’로 불려

온라인에서 가톨릭 신앙을 전파해 ‘하느님의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십대가 밀레니엄 세대로서는 처음으로 성인품에 올랐다.

교황 레오 14세는 7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 시성식에서, 2006년 15세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컴퓨터 영재 카를로 아퀴티스를 성인으로 선포했다. 칭바지와 나이키 운동화 차림의 그의 시신은 현재 아시시의 유리관 무덤에 안치돼 있으며 매년 수십만 명이 참배하고 있다.

아퀴티스는 런던에서 이탈리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독실하지 않았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열렬한 신앙심을 보였다. 밀라노에서 성장하며 매일 미사에 참석했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과 노숙인에게 음식과 침낭을 제공해 ‘자비로운



지난 7일 바티칸에서 가톨릭 최초의 밀레니엄 세대 성인인 카를로 아퀴티스의 시성식이 열리고 있다.

소년’으로 불렸다.

비디오게임을 좋아하는 그는 독학으로 코딩을 익혀 가톨릭 신앙과 기적 등을 온라인에 올려 기록했다.

도메니코 소렌티노 아시시 교구장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폭력적인 사례, 덧없는 유행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범과 삶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며 아퀴티스의 삶을 본받을 것을 촉구했다.

아퀴티스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차노는 아들의 가장 큰 재능은 “모든 사람이 유일하고 반복 불가능한 존재이며 복사본이 아닌 원본이라는 점을 깨

달아 본 것”이라고 말했다.

바티칸은 그가 두 차례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인정했다. 첫 번째는 희귀 책장 기형의 브라질 어린이 치유였고 두 번째는 심각한 사고를 당한 코스타리카 여학생의 회복이었다. 두 번의 사례 모두 가족이 아퀴티스에게 전구를 청했다. 시성은 바티칸의 철저한 조사와 전문가 검증 거쳐 기적이 확인돼야 하며 최종 결정은 교황에게 달려 있다.

이번 시성식은 지난 5월 선출된 첫 미국 출신 교황 레오 14세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행된 시성식이다.

안윤희 객원기자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 9월 **HOT** 리스팅

## 셀러의 희소식 ~

집 팔려니 고민되시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  
우승 학군 싱글홈

**\$1,900,000**

###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씨티  
타운하우스  
방3, 화장실3, 차고2

**\$930,000**

###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찬탈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2, 화장실2

**\$530,000**

###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찬탈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2.5

**\$670,000**

### 앰플러스 부동산 / 비키리 부동산

20년 경력의 탑에이전트의 노하우가 남다른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비키리 부동산,  
부동산의 모든 문제를 내일처럼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703-231-5572 (카톡 상담가능)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은퇴 준비



라이언우  
블루앵커 재정보험

평생 소득이 만든 제2의 인생

불확실성 대비한 어뉴이티 이제 필수  
의료비·생활비 등 '장수 리스크' 대비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지탱해 줄 확실한 소득 없이 평안한 노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퇴직 이후 30년, 길게는 40년 이상을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은퇴자들이 그 기간 동안의 재정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하고 은퇴를 맞이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주요 지출은 예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지속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 주거비: 모기지자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 비용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 생활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의 소비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 장수 리스크: 예상보다 오래 살 경우, 자산이 고갈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래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소득을 만들어주는 해법은 없을까?
- 김 씨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평생 연금 어뉴이티(Life Time Income Annuity)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65세에 \$200,000의 자금을 이 어뉴이티에 일시불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를 5년 유예한 후, 70세부터 매년 \$23,444의 평생 소득을 보장받기로 했

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23,444의 연금이 김 씨가 90세든, 100세든, 그 이후든 평생 동안 계속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김 씨가 약 85세 전후가 되면 원금과 이자 수익이 대부분 소진되지만, 보험사는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 금액은 변함없이 지급됩니다. 즉, 김 씨는 시장 변동성, 수익률 격정, 수명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평생 소득을 확보한 것입니다.

연금이 개시된 이후, 김 씨의 삶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이 ‘따박 따박’ 들어오자 그는 재정적인 불안감에서 해방되었고, 여가 활동과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다시 월급을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시장 상황이나 물가 상승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었고, 무엇보다 “내가 아프거나 오래 살아도 돈이 바닥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어뉴이티는 금액이 크던 작던 누구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뉴이티를 오해합니다. “복잡하고, 부자들만 드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뉴이티는 모든 은퇴자들이 고려해야 할 필수 노후 전략입니다.

부동산 가이드



제이든 모  
Keller Williams Beverly Hills

부동산 정책 대전환 예고

거래 일시 정지로 현금 구입에 제동  
공실에 세금 부과 등 조닝 개혁 가능

조만간 부동산 업계에 큰 소식이 전해질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급박하고 강력한 정책 변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국의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긴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

먼저, 가격이 폭등한 주요 도시에서는 특정 부동산 거래를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마치 ‘부동산 타임아웃’을 연방 차원에서 선언하는 셈이다. 특히 투자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현금 구매자를 견제하기 위해 신용 심사나 다운페이먼트 조건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주요 도시 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는 소문도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로스앤젤레스, 뉴욕, 마이애미와 같은 도시에서는 외국 자본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자 인식이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를 부활시키거나, 활용도가 낮은 상업용 건물을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 과감한 시나리오로는, 공실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주택에 대해 연방 차원의 ‘빈집세(vacancy tax)’를 부과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소 논란이 예상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

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답게, 중산층 주택 공급에 나서는 개발업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거나, 캘리포니아의 SB9 법안처럼 자택 부지 분할과 ADU(부속 주택) 설치를 전국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등장할 수 있다. 지자체 규제를 뛰어넘는 트럼프식 ‘조닝(Zoning) 개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베벌리힐스나 팔로스버데스 같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공실 상태인 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세수는 저소득층 주거 지원 기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뉴욕 맨해튼의 투자 전용 콘도나 마이애미의 프리세일 럭셔리 유닛들은 외국인 투자자 소유 비율 제한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자산가들이 조세 회피용으로 활용해온 ‘법인 명의 주택’에 대해서도 실소유자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추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이 심판 없는 시합 같았다면, 이번에는 드디어 심판이 등장해 새로운 룰을 제시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 물론, 이번 조치가 ‘질서’를 가져올지,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번 발표는 업계 전체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사건이라는 점이다. 매수자, 매도자, 중개인, 개발업자 모두가 세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1998년 9월 22일,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윌리엄 맥도너는 월가의 주요 은행장들을 긴급히 소집했다. 골드만삭스·JP모건 등 내로라하는 14개 투자은행 대표들이 고색창연한 맨해튼 연준 건물로 들어섰다.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웠다. 의제는 위기에 빠진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의 구제였다. LTCM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런 슐츠와 로버트 머튼이 1994년 설립한 헤지펀드였다.

LTCM은 자본 대비 27배에 달하는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저평가된 고위험 자산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저위험 자산을 공매도하는 차익거래 전략으로 유명했다. 10억 달러로 시작한 자본이 4년 만에 5배로 불어났고 연평균 30%가 넘는 수익률로 ‘월가의 신화’가 됐다.

호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동유럽으로 번지고, 재정위기를 겪던

김성재의 마켓 나우

버블은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터질까

러시아가 국제 부도를 선언하자 고위험 자산 가격이 급락했다. LTCM은 자본의 90%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고, 거래 상대방인 은행들까지 연쇄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월가 은행들은 32억 달러의 자본 수혈에 동의했다. 민간 헤지펀드에 대한 전례 없는 구제금융이었다.

충격은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 1998년 7월 2000포인트를 돌파했던 나스닥 지수는 34%

하락했다. S&P500 지수도 1000포인트 선이 무너지며 20% 하락했다. 하지만 위기는 곧 ‘요행’으로 변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당시 1%대의 낮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정책을 고수해 아시아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태도를 급선회했다.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10월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특



별회의까지 열어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연준은 연준의 안전판 역할에 대한 믿음인 ‘연준 풋(Fed put)’을 작동시켜 주가 하락을 막았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주입하자 시장은 마음 놓고 급등 랠리를 연출했다. 나스닥은 이듬해 4000포인트를 돌파했고 2000년 5000포인트를 넘어섰다. 닷컴 버블은 연준이 다시 유동성 고삐를 죄자 차츰하게 붕괴했다.

오늘날 상황도 많은꼴이다. 고용 부진을 이유로 연준이 연달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내년에도 통화완화 정책을 지속하면, 1998년의 ‘유동성 유포리아’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형주와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 가격도 급등할 여지가 크다. 연준이 긴축으로 전환하면 버블이 터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미 퍼먼대 경영학 교수 『관세 이야기』 저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콜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https://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몰아치기’ 김세영, 아칸소서 우승 도전

LPGA 월마트 대회 19일 개막  
최근 5개 대회 4번 톱10 호조  
유해란·박성현·김효주 등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는 한국 선수 가운데 요즘 가장 뜨거운 경기력을 뽐내는 김세영(사진)이 또 한번 시즌 첫 우승 사냥에 나선다.

김세영은 19일부터 사흘 동안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300만달러)에 출전한다.

김세영은 최근 경기력이 한껏 올라와 있다. 최근 치른 5개 대회에서 4번 톱 10에 들었다. 아울러 7월부터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승 경쟁을 벌였다.

가장 처진 성적은 AIG 여자오픈 공동 13위였지만 이때도 우승 경쟁 끝에 받아낸 순위였다.

최근 추세를 보면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LPGA 투어 통산 12번째 우승을 거둔 뒤 58개월 동안 이어진 우승 침묵을 깰 태세다.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은 김세영이 지난해 아깝게 우승 기회를 놓쳤던 터라 설욕전도 겸한다. 지난해 김세영은 이 대회 최종일 1타가 모자라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하고 3위에 만족



해야 했다.

코스 난도가 높지 않고 LPGA 투어에서는 거의 사라진 3라운드 54홀 대회라서 쉬운 코스에서 몰아치기를 잘하는 김세영에게는 기대를 걸만하다.

올해 20회째를 맞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은 지난 19년 동안 한국 선수가 7번이나 정상에 올랐다.

7명의 한국 선수 역대 챔피언 가운데 유해란(2023년), 박성현(2019년)은 대회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유해란은 생애 첫 우승을 따냈던 뜻깊은 대회다. 유해란은 이 대회에서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차지하면서 신인왕 수상의 발판으로 삼았다.

재기에 안간힘을 쓰는 박성현은 LPGA 투어에서 최근 거둔 우승이 월

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이었다. 이곳에서 우승한 뒤 박성현은 긴 침체에 빠졌다. 재기를 알리는 무대로 안성맞춤인 셈이다.

유해란과 함께 시즌 2승을 노리는 김효주와 김아림, 그리고 임진희와 이소미도 출사표를 냈다. 고진영, 최혜진, 전인지, 윤이나 등 한국 선수는 모두 2명이 출전한다.

준우승 징크스에 갇힌 세계랭킹 1위이자 2022년 우승자 지노 티피쿰(미국)과 아직 이번 시즌 우승 물꼬를 트지 못한 넬리 코르다(미국), 야마시타 미유, 사이고 마오, 리오 다케다, 치사토와 아키에 이와이 자매 등 LPGA 투어에서 대세가 된 일본 선수들과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

## 발목 통증 이강인 부상 심하지 않다

경기 도중 오른쪽 발목 통증으로 교체돼 팬들의 걱정을 자아낸 프랑스 프로 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24)에게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는 15일 “방스전에서 발목을 다친 이강인이 정말 걸린 결과 심각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직 발목 부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PSG는 테스트를 거쳐 이강인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아탈란타(이탈리아)전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강인은 14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랑스와의 2025-2026 리그1 4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했다가 후반 12분 교체됐다.

3경기 만에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은 이강인은 후반 10분 페널티아크 정면 부근에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뒤 오른쪽 발목을 잡고 주저앉았고, 결국 더는 경기를 뛸 수 없어 교체됐다.

PSG는 17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아탈란타와 2025-2026 UCL 리그 페이즈 1차전을 펼친다.

## 배지환 다시 마이너로

배지환(26·피츠버그 파이리츠)이 8일 만에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피츠버그는 14일 외야수 배지환의 계약을 마이너리그 트리플 A 인디애나 폴리스 인디언스로 이관했다. 문서상으로 배지환은 14일 경기 뒤에 마이너리그로 내려갔고 15일 인디애나폴리스 소속 선수로 등록됐다.

배지환은 올해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지만,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5월 중순 빅리그로 돌아왔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마이너리그행을 통보받았다. 이달 7일 다시 로스터에 등록됐지만, 이번에도 빅리그 생활은 짧았다. 배지환은 올해 MLB 13경기에 출전해 20타수 1안타(타율 0.050), 4도루로 부진했다.

배지환의 올해 마이너리그 트리플 A 성적은 타율 0.282(248타수 70안타), 1홈런, 20타점, 23도루다.

① 중앙일보 구독 신청  
703-281-9660



우상혁이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우아한 점프로 바를 넘고 있다.

[로이테]

## 우상혁, 두번째로 높이 날다

도쿄 세계육상선수권 은메달

‘스마일 점프’ 우상혁(29·용인시청)이 세계 정상 문턱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우상혁은 15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넘어 2m36을 성공한 해미시 커(29·뉴질랜드)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2년 유

진 세계선수권에 이어 두 번째 은메달이다.

결선 진출자 13명 중 가장 먼저 뛰 우상혁은 2m20을 1차 시기에 가볍게 성공한 데 이어 2m24도 가볍하게 넘었다. 그러나 2m28 1차 시기에 바에 걸렸다.

우승 경쟁자인 커와 올레 도로슈크(24·우크라이나), 주본 해리슨(26·미국)이 1차 시기에 성공해 우상혁은 쫓

아가는 입장이 됐다. 초조함은 길지 않았다. 우상혁은 2차 시기에 바를 넘은 뒤 “좋아”를 외치며 포효했다.

7명이 경합한 2m31은 사실상의 결선이었다. 7명 모두 1차 시기에 실패했고, 우상혁의 차례가 돌아왔다. 2차 시기 첫 주자로 나선 우상혁은 가볍하게 바를 넘었다. 또 한 번의 포효에 남은 선수들은 더욱 긴장했다. 2차 시기에 성공한 우상혁이 중간 순위 선두로 올라선 가운데, 커와 도로슈크, 안 스테펠라(24·체코)가 3차 시기에 살아남았다. 승부는 2m34로 넘어갔다.

1, 2차 시기 실패한 우상혁은 3차 시기에 기어코 2m34를 넘었다. 이에 질세라 커 역시 3차 시기에 우상혁 뒤를 따라 성공했다. 도로슈크와 스테펠라까지 탈락하면서 금메달은 우상혁과 커의 경쟁으로 좁혀졌다.

2m36에서 승부가 갈렸다. 우상혁이 실패한 뒤, 커가 자신의 최고 기록인 2m36을 1차 시기에 성공하며 1위로 나섰다. 우상혁은 2m38로 바를 넘어 막판 대역전을 노렸으나 아쉽게 미치지 못했다. 동메달은 2m31을 넘은 안 스테펠라(24·체코)에게 돌아갔다.

**REALESTATE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후원 투자 리스닝**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p>Realtor <b>지니 최</b>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p>	<p><b>UNDER CONTRACT</b> Rockville MD 싱글홈 \$759,000 방4, 화3</p>	<p>Bethesda MD 싱글홈 \$1,295,000 방4, 화2/1</p>	<p>Gwynn Oak MD 싱글홈 \$419,000 방4, 화3</p>	<p>Realtor <b>스테이시 양</b>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p>
	<p><b>COMING SOON</b> Elkridge MD 타운홈 \$559,000 방4, 화3/1, 차고1</p>	<p><b>UNDER CONTRACT in 3 days</b> Nottingham MD 싱글홈 \$449,000 방3, 화2</p>	<p><b>COMING SOON</b> Columbia MD 타운홈 방3, 화2/1, 차고1</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NT** 집을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b>RENTED</b> Columbia 월 \$3,100 타운홈 방3, 화3.5/Car Porch</p>	<p><b>RENTED IN 3 DAY</b> Columbia 월 \$3,100 타운홈 방5, 화4</p>	<p><b>RENTED</b> Odenton 월 \$3,000 타운홈 방4, 화4</p>	<p><b>RENTED</b> Bowie 월 \$2,800 타운홈 방3, 화2</p>	<p><b>RENTED</b> Pasadena 월 \$2,400 타운홈 방3, 화2.5</p>	<p><b>RENTED</b>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p>	<p><b>RENTED</b>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p>
------------------------------------------------------------------------	---------------------------------------------------------------------	-----------------------------------------------------------	---------------------------------------------------------	--------------------------------------------------------------	-----------------------------------------------------------------------	--------------------------------------------------------------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one) slept like a baby; 곤하게 자다

(Diana is talking to her brother Roger who is visiting her in New York...)

(다이애나가 뉴욕을 찾아온 남동생 라저와 이야기를 나눈다...)

Diana: Did you sleep well?  
다이애나: 꼭 잤어?  
Roger: Yes! I slept like a baby.  
라저: 그럼! 곤하게 잤어.  
Diana: Great. What would you like for breakfast?  
다이애나: 잘했다. 아침은 뭐 먹을까?  
Roger: Oh scrambled eggs?  
라저: 아 스크램블한 달걀 어때?

Diana: Okay I can do that.  
다이애나: 그래. 해줄게.  
Roger: And I could go for a cup of Joe.  
라저: 그리고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  
Diana: The coffee is ready. Help yourself.  
다이애나: 커피 다 됐어. 맘껏 마셔.  
Roger: What are you doing today?  
라저: 오늘 뭐 할거야?

Diana: My day is wide open. I have no plans.  
다이애나: 오늘 하루 종일 시간 있어. 아무 계획이 없거든.  
Roger: Great! Let's walk around the city.  
라저: 잘 됐다! 시내 좀 걷자.

"I could go for a large glass of orange juice." (큰 잔으로 오렌지 한 잔 마시고 싶어.)  
▶ a cup of Joe: (친한 사이끼리 사용) 커피 한잔.  
"I need a cup of Joe before I start work." (일 시작하기 전에 커피 한잔 해야겠다.)  
▶ (one's) day is wide open: 하루 종일 시간 있어.  
"I don't have to work tomorrow. My day is wide open." (내일은 일 안 해도 돼. 하루 종일 시간 나.)

기억할만한 표현  
▶ I could go for...을 하고 싶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가로열쇠

(1) 선사 시대의 돌무덤 (3)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6) 키가 얼굴 길이의 여덟 배가 되는 몸. 균형이 잡힌 아름다운 몸매의 표준으로 삼는다 (7) 귀금속을 문질러 그 품질을 알아보는 데 쓰이는 검은 빛깔의 단단한 돌 (9) 꽃이 지고 난 뒤에 이것이 열린다. 인내는 쓰나 그 ~는 달다 (10) 나라밖으로 나갈 (11) 돈을 지나치게 밝히고 집착하는 경향. ~이 오르다 (12)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신분에서 오르거나 유명하게 됨 (13) 잉어와 닭을 함께 넣어 푹 끓인 국 (15) 집을 실을 수 있도록 말이나 소의 등에 얹는 운반구 (16) 마음을 졸이며 조급해함 (17) 딱따구릿과에 속한 새. 날카롭고 단단한 부리로 나무에 구멍을 내어 그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다 (19) 산속에 있는 별장 (20) 얇게 저민 수육 (21) 산꼭대기나 비행기 따위에서 내려다본 바다처럼 널리 깔린 구름 (22) 강을 건넌 (23) 통나무의 속을 파서 큰 바가지같이 만든 그릇 (25) 참됨과 착함과 아름다움 (27) 차를 탔을 때 느끼는 어지러움 (28) 목격하는 광물이 많이 묻혀 있는 광맥. 필요한 물건이나 이익이 많이 나오는 곳

세로열쇠

(1) 말이나 소의 재갈이나 코뚜레, 굴레에 잡아매는 줄. ~가 길면 밝힌다(여러 번 계속하면 결국에는 들리고 만다) (2) 돌맹이를 던지는 짓 (3) 성공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침 (4)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 (5) 물에 글씨를 새겨 무덤 앞에 세우조 (8) 금액을 밝히지 않고 봉투에 넣어서 주는 돈 (9) 책이나 글 따위를 열심히 읽음. 매일 중앙일보를 ~하다 (11) 정당하지 못한 돈을 자금 출처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일 (12) 선거에 입후보함 (13) 상품이나 물건 따위를 전문적으로 배달함 (14) 고기튀김에 달고 새콤하게 끓인 녹말채소 소스를 끼얹은 중국요리 (15) 좋은 일이 있을 조짐 (16) 말의 등에 얹고 여기에 올라앉조 (18) 가축의 사료가 되는 풀이 자라고 있는 곳. 소와 말이 ~에서 한 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 (19) 산과 바다에서 나오는 온갖 재료로 만든 진기한 음식 (20) 얇게 저며서 설탕에 조려 말린 생강 (22) 하나가 넘어지면 연이어 넘어지조 (23) 짐승을 잡기 위하여 판 구덩이 (24) 승마용 구두의 뒤축에 달린 쇠 (26) 가장 굵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스도쿠

		1		7				5
7			6					
2		6						9
	9	8	4	3		6	1	
	2	7			5			
					1			2
	8		1			7		3
6			2		9		4	
					7		8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9	8	6	7	5	3	2	1	4
1	4	5	6	8	2	3	7	9
3	2	7	9	4	1	5	8	6
2	5	8	1	6	4	7	9	3
4	9	3	5	6	8	7	2	1
7	1	9	2	3	4	8	6	5
6	7	4	8	1	5	9	3	2
8	3	1	4	2	9	6	5	7
5	6	2	3	7	6	1	4	8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checkbox"/> EXP. DATE: / month year <input type="checkbox"/>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Sung Hwang & Kim

##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MD, DC, V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Baker Botts, LLP  
NY, MD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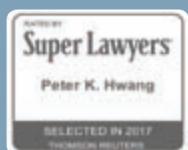
**다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 Clemson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JD

**약력**  
Eccleston & Wolf  
MD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 김우기

#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 메디케어 교통사고 케어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진료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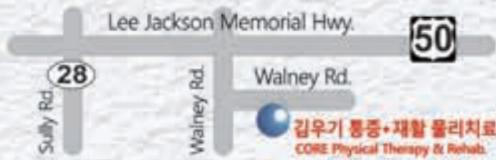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9월  
구  
인  
광  
고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 직원 모집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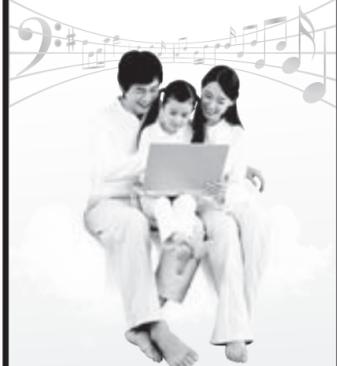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독자가 행복 해진다!!

**Kmediarods.com**

① 워싱턴 중앙일보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 (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 메릴랜드지역

### 구인/사무/직원모집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기사(오픈 거주 환영)  
주방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전트 구함, 사무실제공, 유/무경험자가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코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서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 세탁소/이미용/기타

엘리콧 시티 Cafe June 직원 모집  
-바리스타 2명  
-샌드위치 스태프 1명  
(주말 근무 가능자, 신입/경력 모두 환영)  
443-386-0515

19개월 남자 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입주가능 또는 출퇴근 (풀 & 파트타임)  
410-961-3012

파리바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들 모집합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심 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메일: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파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926-3200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어아웃 같이 일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콧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속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엘리콧시티 한국 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장, 캐시어를 모집합니다.  
443-691-4130 (문자로만)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콧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세탁소 풀/파타임, 베깅만 하실분, 영어 가능 하신분  
410-926-3200

골든 듀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 면허/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집합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 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 싱글/타운 방 렌트

메릴랜드 저먼타운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방3, 화3.5, 10월1일부터 입주 가능  
301-219-6030 (문자로만)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룸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메릴랜드 그린벨트 지역, 조용하고 교통편리 타운하우스 방 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301-379-9660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번째 EXIT,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싱글룸 이중방 렌트, 즉시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교통 편리한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싱글룸 1층 전체 렌트, 방 2, 화장실 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미용실 가능)  
301-646-3127

메릴랜드 한오버 이중방 & 베이스먼트 방 렌트 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층방 렌트, 유/무, 가구일체, 교통편리, 직장인 남자분 환영  
443-631-7866

### 사업체 매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 곳으로 리모델링비 절감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상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 버지니아 지역

### 구인/사무/직원모집

간호사 모집 RN, LPN (풀타임, 파트타임) 재택근무, 처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가 가능, VA & 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살본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jsj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합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풀타임)  
급여: 인턴후 조정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 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 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 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찰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찰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 식당/식품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파리바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들 모집합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셰프 구합니다.  
703-258-4356

애난데일 일본 라면 가게에서 파트타임 홀직원 구함. 유/무 경험자 환영  
703-338-3037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 (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콧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속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집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트타임 카운터 캐시어 구함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진욱

### 최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 NO.1

###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 브래덕 패밀리 치과

###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 571-339-3628

# 571-339-3682

## 구인

###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 구합니다!

### 문자로만 연락 바람

# 301-787-4842

##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 703.691.1993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티어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폴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향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폴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 이미용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 세탁/엘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리 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한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살본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강하실분/  
파/폴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폴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 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에서 수선하실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함.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콧시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 청소/기타구인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니셔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571-422-7189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 싱글/타운홈 렌트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로빈슨하이 스쿨 근  
처) 1,496sqft 전체 렌트  
방3, 화3.5, \$3,000 11/5일부터 입주가능  
703-470-1736 / 703-470-7066

조용한 로튼(페어팩스) 고급 주택가 1층 같  
은 워크아웃 지하전체 렌트합니다.  
2,500 sqft, 방3개, 넓은 리빙룸, 인터넷, 유  
틸리티 포함, 냉장고, 세탁기, 마이크로 오븐  
등 주방시설, 출입분 별도  
703-478-452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 (아랫층  
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욕, 큰 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애쉬버튼 타운하우스 렌트 \$3,300  
전체마루, 차고2, 텍, 267/607

Briar Woods 하이 스쿨 학군  
▶571-239-6054

페어팩스 비엔나 지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 베이스먼  
트 \$3,200  
470-485-1875

1. 페어팩스 타운홈 \$3,3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편리한 로케이  
션, 잘 관리된 집  
2. 센터빌 타운홈 \$3,0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 많  
이함, 굿 로케이션  
3.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 화2.5,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 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애난데일 엔드 유닛 타운홈 스타일 콘도 렌트  
방3, 화2, 나무마루, 세탁기, 건조기, 1,2층  
구조, 넓은 리빙룸 2,500 (물값 포함)  
▶703-477-3114

애난데일 중심가 1 에이커 싱글하우스 반 지  
하 전체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세탁기, 입구 별도,  
주차터널, 최근 전부 새로 수리하였으며, 전  
화 하면 사진 보여드립니다  
703-395-4380

브리스토 (게인스빌 옆) 타운 하우스 렌트,  
엔드 유닛, 방3, 화3.5, 차고2, 업데이트  
된 주방, 세탁기, 건조기, 새 페인트, 넓은 텍,  
2013년 지은 새 단지 새 집, \$3,2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게인스빌 업데이트된 예쁜 벽돌 타운홈  
방3, 화4, 차고2, 탁트인 키친,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확장형 3층 구조, 가까운 곳에 큰  
쇼핑센터, 레스토랑, 그로서리 있음,  
\$3,2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군,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 파웰츠,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571-239-6054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렌트, Safe Way 건너편, 업데  
이트한 밝고 예쁜 콘도, 방2, 화1, 새 카펫, 새  
페인트, 물값과 가스비 포함 \$2,0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업데이트한 밝은 콘도, 엔드 유닛,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2,500 즉시 입주  
▶703-477-3114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2,5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존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  
고1, 이노베이션 매트 로어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  
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1. 옥톤 싱글 \$3,600, 방5, 화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 방 렌트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 방 렌  
트, 나무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성분 환영  
고양이 괜찮으신분만 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메시아 장로 교회 뒤 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 (아랫층  
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욕, 큰 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방 렌트 또는 하숙 하실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  
세탁기 모두 별도, 편리한 파킹  
703-388-8518

페어팩스 왓슨 하이 스쿨 건너편 타운 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1, 키친, 욕실, 워크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 한강 식당 뒤 싱글홈 방 렌트, 주차  
편리  
703-395-4380/703-965-234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 화1, 주방, 여자분 환영 \$1,200  
즉시 입주 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주택 지하 렌트  
방2, 화장실, 큰 거실, 부엌, 방 하나 쓰실분  
또는 전체 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놓습니다.  
출입분 별도, 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13-9080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이층 욕실 딸린 큰  
방 하나 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 CVS 근처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

룸/개인욕실/워크인 클로젯/여성분 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인터넷/간단한 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포 \$1,100  
▶301-928-4125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방 렌트, 화장실 딸  
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 가능  
703-622-2033

##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센터빌 벽돌 타운 하우스 \$589,000  
방3, 화2.5, 차고 1 H Mart 근처  
29/28/66 Braddock  
▶571-239-6054

1. 알렉산드리아 콘도 \$274,900  
넓은 방2, 화1, 탁트인 넓은 뷰, 완전히 리모  
델링한 콘도,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SS  
Appliances  
2. 레스톤 콘도 \$499,900  
고급 콘도, 방2, 화2, 나무마루, 잘 리모델링  
된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팅, 업그레이드한  
부엌과 화장실, 아메니티가 좋음  
3. 우드브릿지 타운홈 \$410,000  
방3, 화3 1/2,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집, 펜스  
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 지  
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703-813-8949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역서  
리싱글 \$1,699,000  
1 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3차  
고,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야외 주방, 벽난로, 연못, 분소, 텍, 음향시스  
템등)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571-239-6054

1. 메릴랜드 베데스다 싱글홈 \$1,295,0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703-281-9660

571-723-0446

### 독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신문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광고 한달유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5

방4, 화2.5  
2. Gwynn Oak 메릴랜드 싱글홈 \$419,000  
방4, 화3  
▶301-318-4242

1.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9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하고 예쁜 집  
2. 워싱턴 디씨 SE 타운 \$649,000  
방5, 화장실 3+1, 새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예쁜 집  
▶410-417-7080

1. 메릴랜드 포도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포도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새로 고쳤으며, HOA가 없는 집  
▶410-417-7080

1. 페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꾸여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페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우순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4.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앤드 유닛,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2. 맥클린 콘도 \$40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 옆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65,000  
방2, 화2, Top Floor 엔드 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마루, SS Ap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1. 센터빌 싱글홈 \$770,000  
방3, 화3.5,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2. 페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  
▶703-899-8999

1.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2.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3.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1. 페어팩스 새 빌더홈 우순 학군 싱글홈 \$1,900,000  
2. 페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3. 첼틸리 새 빌더홈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670,000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없음.  
2. 매나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 사업체 매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qft, 저렴한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델링비 절감 효과.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헤어, 네일 & 스파 살롱 사업체 매매 (레스트/헌돈 지역)  
-\$100,000  
- 현지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 성장 가능  
- 월임대료 & 수도세 없음 \*\*  
- 6개 헤어부스 + 2 페디큐어부스 + 2 네일 테이블 + 1 마사지룸 + 1 욕실룸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 중고매매/기타

상태 좋은 남/여 중고 골프 세트 싸가격에 팝니다.  
703-966-9072 (Mr.Kim)

19개월 남자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입주가능 또는 출퇴근 (풀 & 파티업)  
410-961-3012

부동산 학교 (5주 속성반)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한국식 쪽집게 수업, 온라인 수업 병행, 기본 컴퓨터 교육,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수업료 \$350 (교재비 \$100)  
703-899-8999/410-417-7080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악기별 개인맞춤 레슨  
757-338-8496

애난테일 H 마트 근처 텃밭 공유 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 세일 (센터빌)  
다이나믹 테이블, 쇼케이스 그림, 유로피안 장식 품, 골동품, 청동으로된 인어공주, 자수정수 집품, 감이지 케리어 등등  
808-223-4825

1년된 Inokim OX Scooter  
공원에서 사니번만 사용해 상태 좋음, 필요하신분께 저렴하게 드립니다.  
703-945-2991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zoom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Email : inyeolchoi@hotmail.com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을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맥,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 맥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드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맥,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 보험

울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심 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Email: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옷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 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타프,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방 물새는 것  
▶703-499-5984

##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삿짐 (24/7)  
빠른/책임/값이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 (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어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역류방지/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응급(철, 스텐, 알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H.P. 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980-5858 (MD)

▶▶ 미국 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J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웁산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 웨딩스토리

###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셉텀프 교체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 인터테크 냉난방

###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 EVERSHINE Construction

###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703.994.2943**  
Ray Kim

##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 블라인드 / 틈트

##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통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중앙일보 온라인 쇼핑몰 **핫딜** **핫딜세일**  
 매일 찾아오는 핫딜의 톡큰 세일해택! 이번 달에도 아낌없이 받아주세요~



녹용·산삼 함유 전통 환약, 원기·피로회복·염증치료 건강선물  
 허약체질개선, 스트레스감소, 면역력개선, 건망증/치매 예방  
**케이힐링 아생산삼 프리미엄 공진단**  
 원기회복 공진단 1BOX (10개) ~~\$399~~ **\$149.95**

**FE-7301** 당신을 설레게 할, 다리가 가벼워지는 경험  
 2단계 온열모드, 360도 4단계공기압마사지, 진동&무선기능  
**휴비딕 공기압 종아리 안마기**  
 1개 Single **\$41.99** 2개 Pair **\$75.99**



2Box구입시 가격 특가 패치만 교체하면 자석 영구 사용 가능  
 의약품 자기발생기로 간편한 휴대성과 뛰어난 신축성의 패치  
**파워플렉스 메디핑 자석패치** 일회용크림 샘플증정  
 1BOX+ 일회용크림 2ml 2개증정 **\$32** 2BOX+ 일회용크림 2ml 4개증정 **\$58**

고소함의 깊이가 다른 참기름과 들기름의 완벽한 브랜딩  
 이모카세님 손맛+광천김의 50년 전통 장인 정신으로!  
**광천김 이모카세 1호 도시락김**  
 24팩 **\$12.99** 36팩 **\$18.50** 48팩 **\$23.50**



맑은 숨결, 상쾌한 일상, 치아건강을 위한 하루 한알 건강습관  
 입냄새 잡는 상쾌한 구강유산균&건강한 치아/잇몸 덴탈유산균  
**오라틱스 그린브레스&티스앤검스**  
 그린브레스 4팩 **\$63.20** 티스앤검스 4팩 **\$63.20**  
 그린브레스 6팩 **\$84.10** 티스앤검스 6팩 **\$84.10**

**50g 대용량 + 15g x 3 미니어처** 미백+기미케어 기능성크림  
 72시간 수분 보습, 3X 업그레이드, 즉각적인 피부톤 케어  
**TG도미나스 크림플러스** 50g 크림 + 15g x 3개  
 24.5%기미완화 ~~\$89.99~~ **\$74.99**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 LIBERTY UNIVERSITY & MIT

(Meridian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세계 최초 카드 프로세싱 · Fintech · IT 창업 전문대학**

①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과정 (Fintech & IT Training)**

- 전문 과정 수강료: \$5,000
- 카드 단말기-POS-온라인 결제 교육
- 교육 후 공인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자격 취득
- 실습 과정 + 현장 배치 지원
- 안정적 수입

② **소액 창업자 & 투자자반**

- 카드 프로세싱 회사 운영 기회 제공
- 창업 투자자금 약 \$50,000부터 가능
- 본사 지원으로 독립 지점 개설 가능
-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 기업 제품 판매 및 서비스 기회
- 결제 시스템 + 마케팅·운영·고객 관리 교육 제공

③ **비자 연계 창업 프로그램 (E-2, EB-5 Visa)**

- E-2 비자: \$150,000~\$300,000 투자  
→ 투자비자 교육 프로그램 + 독립 지점 창업 지원
- EB-5 비자: Million Dollar 투자 프로그램 (영주권 연계)  
→ EB-5 프로그램 교육 과정 포함
- 글로벌 투자 이민 컨설팅 회사와 투자 이민 전문 변호사 협력 지원가능
- 합법적 미국 체류 +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기회 제공

교육 + 창업 + 투자이민 원스톱 솔루션 제공  
 Liberty Bankcard(MPS) & Liberty University 전문 지원  
 세계 1위 회사(Worldpay.com) 서비스 제공하면서 안정된 고소득 창출하세요.

문의 (424)332-3779 미전지역가능  
 info@meridianwish.com www.meridianwish.com www.worldpay.com  
 입학 설명회 및 ZOOM 미팅 예약번호: (424) 332-3779

##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르레

##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육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Dealer No 90-491972, Permit 007669

## 자연산삼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직접 캐오는 Wild Ginseng 입니다.

자연산삼의 효력

- 5~20년 \$600
- 면역력 향상효과
- 당뇨 혈압
- 체력증강 등등.
- 20~30년 \$1,000
- 30~50년 \$1,500

문의 (571)236-8591

L.A. 매매

구인

여자웃 소/도매 컨설팅  
 머천다이즈와  
 바잉 가르쳐드립니다.  
 매상극대화  
 문의는 문자주세요.  
 (213)507-5258

Dental Lab 매매  
 Columbus 오하이오  
 매상:110만불 이상/년  
 주인은퇴  
 E-MAIL TO:  
 accutech614@gmail.com

이민생활의 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출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능력 쑥쑥  
 양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양문삽입용,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 Leisure World Seal Beach, CA

###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사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육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22일~12월5일까지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S.WesternAve.#100LosAngeles,CA90020 | TEL:213-272-6031

### 본교 지원시 특전

-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 특점 Alexandria 콘도

넓은 방2, 화1, 탁 트인 넓은 뷰,  
완전히 리모델링한 콘도,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SS Appliances

**\$274,900**



## 특점 Reston 콘도

고급 콘도, 방2, 화2, 나무 마루,  
잘 리모델링된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팅,  
업그레이드한 부엌과 화장실, 아메니티가 좋음

**\$499,900**



## 특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1/2,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집,  
펜스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 지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410,000**



## 특점 Alexandria 콘도

방2, 화2, Top Floor 엔드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Deck, 건조기 및 세탁기

**\$365,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